

SBM

Self Bible Meditation for Maturity

룻기

RUT · 역사서 · 히브리어

관찰 핵심 정리 · 완성 4장 · 네다바웨이 Observatory

룻기 1장

RUT-001 · 역사서 · 히브리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1:1)는 떡집(베클레헴)의 빈 곳간으로 열려, 한 가정에 닥친 세 죽음(1:3-5)과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1:8)의 만류, 오르바의 입맞춤 너머 룻의 결단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1:16) 위에서 — "나를 마라라 부르라"(1:20)는 빈손의 애통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클레헴에 이르렀더라"(1:22)는 첫 빛으로 닫히는 룻기의 개막.

관찰된 사실

룻기 1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 두 땅 사이의 길 — 유다 베클레헴(떡집)과 동쪽 모압 지방. '떠남(1~5) → 길 위의 갈림(6~18) → 돌아옴(19~22)'의 3막.
- 무대의 아이러니: 떡집(Bet-lechem)이라는 이름의 동네에 흉년(raav)이 들어 떡이 없음(1절) — 이름과 처지의 어긋남.
- 소품: 빈 곳간(1절), 무대 밖에 쌓인 세 무덤(3·5절), 오르바의 입맞춤(14절), 룻이 붙잡는 손(14절), 양식의 소식(6절), 보리 이삭(22절).
- 소품의 곡선: 빈 곳간(1절)으로 열려 추수밭(22절)으로 닫힘 — 비움에서 곧 채워질 밭으로.
- 소재의 기울기: 앞쪽은 비우는 어휘(흉년·떠남·죽음·빈손), 한가운데는 채우는 어휘(백성·하나님·붙잡다·묻히다), 끝은 도착의 어휘(보리·추수·이르렀더라).
- 형식 소재: 1절의 시대 표지("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shuv(돌아가다·돌아오다)의 거듭됨, 칼이 아니라 곳간으로 여는 개막.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1~5절의 빠른 숨막힘 — 흉년·이주·결혼·죽음이 다섯 절에 압축. 5절은 짧고 차가운 한 가정의 소멸.
- 16절에서 커지는 따뜻함 — 차갑던 장 한가운데에 룻의 길고 단단한 목소리가 들어옴.
- "돌아가라"의 후렴(8·11·12·15절) — 사랑해서 미는 손. 16절의 한마디가 그 후렴을 정면으로 끊음.
- 어둠(모압의 흉년·죽음) → 회색(길 위의 갈림) → 한 줄기 빛(22절 보리 추수기)의 명암.
- 속도의 차이: 십 년을 다섯 절에 압축(1~5), 길 위의 한 장면을 열 절에 늘임(8~18). 시간 속도가 사건의 무게를 따라감.
- 빈손의 정직한 애통(20~21절) — 원망이 아니라 욕 1:21과 닿는 결. 발화의 방향만 관찰.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클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 22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룯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 베들레헴을 떠나는 문장으로 열려 베들레헴에 도착하는 문장으로 닫힘 — 같은 지명을 끼고 떠남·돌아옴의 액자.
- 인원의 이동: 떠날 때 넷(남자 셋·여인 하나) → 돌아올 때 둘(여인 둘). 남자가 사라진 곳에 모압 여인 하나가 더해짐.
- 1절(흉년에 떠남) ↔ 6절(양식 소식에 돌아옴) — 떠남과 돌아옴의 이유가 같은 단어 lechem(양식)으로 걸림.
- 한 가정의 떠나는 등(출발) ↔ 온 성읍이 알아보는 술령임(19절, 도착) — 빈손인데 도착은 공개적.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엘리멜렉('내 하나님은 왕', 왕 없는 시대에 죽음), 나오미('희락', 중심 목소리), 말론·기론(두 아들), 오르바·룯(두 모압 며느리), 무대 뒤의 여호와(6절 돌보심·8절 선대의 대상·20~21절 애통의 방향), 19절의 온 성읍.
- 중심 사상: 헤세드(chesed) — 8절에서 나오미가 입으로 구한 인애를, 룯이 발로 행함. 하나님의 인애와 사람의 인애가 한 단어로 겹침.
- 빈손의 서사: 떠날 때 가졌던 것(남편·두 아들·곳간)이 다 사라짐. 만류의 논거는 계대결혼의 가망조차 없음(11~13절) — 줄 것 없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놓아주려 함.
- 룯의 결단(16~17절): 이방 여인이 여호와와 이름을 걸고 맹세함. 맹세가 사람을 통해 그 사람의 하나님께로 감 —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 길이라는 무대(7·14절): 큰 사건이 길 위에서 일어남 — 함께 오르고(7절), 갈림(14절). 한 사람은 뒤로(오르바), 한 사람은 앞으로(룯).
- davqah(불꽃음, 14절): 창 2:24의 연합 어휘권. / reqam(빈손, 21절): 출 3:21의 어휘권 — 거기선 부정문, 여기선 긍정문.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5절): 비움 — 흉년과 모압 거류(1~2), 엘리멜렉의 죽음(3), 두 아들의 모압 여인 결혼(4), 두 아들의 죽음과 나오미만 남음(5). 십 년이 다섯 절에 압축.
- 컷 2 (6~15절): 길 위의 만류 — 양식 소식과 귀향(6~7), 선대를 구하는 만류(8~9), 통곡과 거절(10), 계대결혼의 가망 없음(11~13), 오르바의 입맞춤·룯의 불꽃음(14~15).
- 컷 3 (16~18절): 룯의 결단 —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16), 여호와와 이름을 건 맹세(17), 나오미가 말리기를 그침(18). 권의 심장.
- 컷 4 (19~22절): 마라의 귀환 — 온 성읍의 술령임(19), "나를 마라라 부르라"(20), 풍족과 빈손의 대비(21), 보리 추수기의 도착(22).
- 컷 2 내부의 만류 사다리: 친절로 보냄(8절) → 계대결혼의 가망 없음(11~13절) → 오르바를 본보기로 둔 마지막 권유(15절). 점점 단호해지는 만류를 룯의 한 발화가 한 번에 끊음.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 Bet-lechem(בֵּית לֶחֶם) — 떡의 집(1절). / raav(רָעַב) — 흉년 — 한 절 안에서 부딪침.

- *gur*(גור) — 거류하다·나그네로 머물다(1절). 정착이 아닌 임시 체류.
- *Elimelekh*(אֱלִמֶלֶךְ) — '내 하나님은 왕'(2절). / *Naomi*(נְאוֹמִי) — '희락·즐거움'.
- *paqad*(פָּקַד) — 돌보시다·찾아오시다(6절). 여호와와의 직접 행동 동사. / *lechem*(לֶחֶם) — 양식·떡.
- *chesed*(חֶסֶד) — 선대·인애·언약적 신실(8절). 권 전체를 끄는 어휘의 첫 등장.
- *nashaq*(נָשַׁק) — 입맞추다(14절, 오르바). / *davqah*(דַּבָּקָה) — 붙좃다·연합하다(14절, 롯). 창 2:24의 어휘권.
- *ammi*(אֲמִי) — 나의 백성(16절). / *Elohai*(אֱלֹהָי) — 나의 하나님(16절). 롯의 맹세의 두 핵심어.
- *Shaddai*(שַׁדַּי) — 전능자(20절). / *Mara*(מָרָא) — 쓰다·쓴맛(20절). 나옴('희락')와 정반대의 이름.
- *reqam*(רָקַם) — 비어·빈손으로(21절). 출 3:21의 어휘권 — 거기선 부정문, 여기선 긍정문.
- *shuv*(שׁוּב) — 돌아가다·돌아오다. 6~22절에 거듭됨 — 누구의 방향이냐에 따라 정반대로 쓰임.
- *qetsir seorim*(קֵצִיר שְׁעִירִים) — 보리 추수(22절). 도착의 절기이자 2장 발의 복선.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 비움(1~5) + 길 위의 만류(6~15) + 결단(16~18) + 마라의 귀환(19~22) — 비움에서 도착으로 한 번 바닥을 치고 오르는 개막 구조.
- 이름의 짜임(name irony): 떡집에 떡 없음 · 엘리멜렉('내 하나님은 왕')이 왕 없는 시대에 죽음 · 나옴('희락')→마라('쓰다'). 처지와 어긋나는 이름들. 롯만 행동으로 자기를 설명.
- *shuv* 핵심어 반복: 떠남(*gur*, 1절)과 돌아옴(*shuv*, 22절)의 액자. 만류의 "돌아가라"와 거절의 "떠나지 않겠 나이다"가 같은 동사권에서 충돌.
- 오르바·롯의 대조 짝(14절): 입맞춤(*nashaq*)과 붙좃음(*davqah*) — 같은 길 위의 정반대 동작.
- full↔empty 교차(21절): "풍족하게(male) 나갔더니 비어(*reqam*)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 채움과 비움의 대구.
- 보리 추수의 복선(22절): 빈손의 귀환 바로 뒤에 절기 정보 한 줄 — 2장 보아스의 밭(이삭줍기)을 미리 줌.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 흉년에 따른 일가의 거류(*gur*) — 더 비옥한 인접 지역으로의 임시 생존 이동. 창 12:10 아브람의 애굽 거류와 닿는 모티프. 1:1-2의 배경.
- 과부와 자식 없는 여인의 취약성 — 토지 상속·부양망 바깥으로 밀려나는 가부장 사회 구조. 1:5·1:21의 배경.
- 친정(어머니의 집)으로의 귀환 권유 — 사별한 며느리에게 재혼의 길을 열어 주는 관습. 1:8-9의 배경.
- 이름과 처지를 겹쳐 읽는 셈어권 작명 감각 — 베들레헴·나옴·마라. 1:1·1:20의 배경.
- 보리 추수기 — 봄철 수확이 한 해 양식의 시작이자 이삭줍기 규례(레 19:9·신 24:19)가 작동하는 절기. 1:22가 2장의 밭을 미리 줌. 후대 유대 전통은 칠칠절에 롯기를 낭독함(전례 배경).
- LXX: 1:14의 오르바 귀환 문장 추가(갈림의 명료화), 1:21의 동사 형태 차이, *Naomi* 음역·*Mara* 의역(Πικρία)의 갈림 — 본문비평·번역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롯 1:1 ↔ 샏 21:25 (사사 시대 —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와 같은 시대의 다른 결)
- 롯 1:1 ↔ 창 12:10 (흉년의 거류 — 아브람의 애굽 이주 모티프 전사)
- 롯 1:1-2 ↔ 창 35:19; 미 5:2 (베들레헴 에브라다 — 지명과 후대 예언으로 열리는 다리)

- 룯 1:16-17 ↔ 신 23:3 (모압 자손과 총회 — 율법의 경계와 모압 여인의 맹세 사이의 거리)
- 룯 1:22 ↔ 신 24:19-21; 레 19:9-10 (이삭줍기 규례 — 2장 보아스의 밭의 전사)
- 룯 1:20-21 ↔ 욥 1:21 (주신 이도 거두신 이도 여호와 — 빈손의 애통과 닿는 결)
- 룯 1장 ↔ 삼상 1장 (한나의 빈손과 채움 — 비움에서 채움의 평행 배경)
- 룯 1:14 ↔ 창 2:24 (davqah 연합 — 붙좃음의 어휘권)
- 룯 1장 ↔ 룯 4:17-22 (오벳·이새·다윗 — 빈손이 향하는 권의 도착점)
- 룯 1장 ↔ 마 1:5 (보아스가 룯에게서 오벳을 — 신약 계보로 이어지는 줄)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베들레헴, 마른 들녘. 자막 —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흉년이 드니라. 떡집인데 떡이 없다. 한 가정이 동쪽으로 떠난다 — 한 사람과 아내와 두 아들. 모압. 십 년이 흐르고 세 번 흠이 덮인다 — 남편, 두 아들. 한 여인만 빈 방에 남는다. 한 소식이 바람처럼 든다 —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 함을. 여인이 길에 오른다. 길 위에서 걸음을 멈춘다 — 너희는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셋이 온다. 한 며느리가 입맞추고 뒤돌아선다 — 오르바. 다른 며느리는 들러붙어 떨어지지 않는다. 그 며느리가 길 한복판에서 입을 연다 —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여인이 말리기를 그친다. 둘이 함께 걷는다. 베들레헴이 보이고 온 성읍이 술렁인다 — 이이가 나오미나. 여인이 손을 젖는다 — 나를 마라라 부르라,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음이라, 풍족하게 나갔더니 비어 돌아왔으니. 마지막 컷, 카메라가 들판으로 돌아간다 — 보리밭이 익어 간다. 자막 — 보리 추수 시작할 때였더라. 페이드아웃.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벌 제목: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 빈손 곁에 비치는 보리밭"
- 초벌 부제: "사사 시대의 어둠과 같은 무대에서(1:1), 떡 없는 떡집의 흉년과 한 가정의 세 죽음(1:3-5) 위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1:8)의 만류가 거듭되고, 모압 여인의 입에서 여호와와 이름의 맹세(1:16-17)가 솟으며, '나를 마라라 부르라'(1:20)는 빈손의 애통이 보리 추수기의 도착(1:22)으로 닫히는 — 헤세드로 열리는 룯기의 개막"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22개 기록)
-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이름의 짜임 + shuv 핵심어 반복 + full↔empty 교차 + ANE 거류·과부·이삭줍기 배경)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1:16-17의 룯의 맹세를 '이방인 선교의 모범'이나 '회심의 표본'으로 일반화하지 않고, 모압 여인의 입에서 여호와와 이름이 걸린 발화 사실과 ammi·Elohai의 어휘 관찰로만 둬. 신 23:3의 율법 경계와의 거리도 비워 둔 채 보존.
- 1:20-21의 마라 개명을 '원망 대 신뢰'의 도덕 평가로 닫지 않고, 빈손(reqam)을 정직하게 여호와께 돌리는 애통의 발화 방향과 male↔reqam 대구의 형식 관찰로 보존.
- 1:6의 '돌보심(paqad)'을 보응·축복 교리의 증명으로 끌고 가지 않고, 양식의 소식이 귀향의 방아쇠가 되는 사건 순서의 사실로만 기록.
- 1:14의 오르바와 룯의 갈림을 '버림 대 헌신'의 인물 정죄로 단정하지 않고, nashaq(입맞춤)와 davqah(불쫓음) 두 동작의 대조라는 형태 관찰로만 둬.
- 1:22의 보리 추수기를 '곧 올 복의 예표'로 단정하지 않고, 빈손의 귀환 곁에 놓인 절기 정보 한 줄과 2장으로 열린 복선의 배치 사실로만 둬.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룯기 1장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1:1)는 떡집(베들레헴)의 빈 곳간으로 열려, 한 가정에 닥친 세 죽음(1:3-5)과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1:8)의 거둬진 만류, 오르바의 입맞춤(1:14) 너머 룯의 결단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1:16) 위에서 — "나를 마라라 부르라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1:20-21)는 빈손의 애통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1:22)는 첫 빛으로 닫히는, 헤세드로 열리는 룯기의 개막이다.

한 문단: 베들레헴, 마른 들녘. 떡집이라는 이름의 동네에 떡이 없다. 한 가정이 동쪽 모압으로 떠난다 — 한 사람과 아내와 두 아들. 십 년이 흐르고 세 번 흉이 덮인다 — 남편, 두 아들. 한 여인만 남는다. 양식의 소식이 바람처럼 든다 —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떡을 주셨다. 여인이 길에 오르고, 두 며느리가 따른다. 길 위에서 만류가 거둬진다 —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한 며느리는 입맞추고 돌아서고, 한 며느리는 들러붙어 떨어지지 않는다. 그 며느리가 길 한복판에서 맹세한다 —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여인이 말리기를 그친다. 둘이 함께 베들레헴에 들어서고 온 성읍이 술렁인다 — 이이가 나오미냐. 여인이 손을 젖는다 — 나를 마라라 부르라, 풍족하게 나갔더니 비어 돌아왔으니. 화면의 마지막에 들판이 남는다 — 보리밭이 익어간다. 빈손의 밭 앞에 추수가 시작되고 있다.

B·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두 땅 사이의 길(베들레헴·모압)의 무대, 떡 없는 떡집의 아이러니, 빈 곳간·입맞춤·불쫓는 손·보리 이삭의 소품 — 비움에서 도착으로 기우는 소재.
2 첫 느낌·분위기	다섯 절의 빠른 비움. "돌아가라"의 만류 후렴과 그것을 끊는 16절. 어둠에서 한 줄기 빛(22절)으로. 빠른 비움과 느린 결단의 속도 차.

단계	핵심 발견
3 시작과 끝	베들레헴을 떠나(1절) 베들레헴에 도착(22절)하는 액자 — 인원의 이동(넷→둘). 흉년의 떠남과 양식의 돌아옴이 lechem 한 단어로 걸림.
4 등장인물·사상	가장 긴 발화는 모압 며느리의 것. 입으로 구한 헤세드(8절)와 발로 행한 헤세드(룻). 줄 것 없는 시어머니의 만류와 받을 것 없이 남는 결단.
5 장면 컷	비움(1~5)/길 위의 만류(6~15)/결단(16~18)/마라의 귀환(19~22) 4컷. 컷 2 내부는 친정→계대 불가→오르바 본보기의 만류 사다리.
6 의문·발견·정보	이름의 짜임(떡집·엘리멜렉·나오미→마라). davqah(불쫓음)와 reqam(빈손)의 어휘권. 같은 시대의 두 결(사사기 vs 룻기). 보리 추수의 복선.
7 동영상	떡 없는 떡집의 떠남 → 세 번의 흉과 양식의 소식 → 길 위의 갈림 → 한 며느리의 맹세 → 마라의 귀환 → 익어 가는 보리밭.
8 초별 제목·부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 빈손 곁에 비치는 보리밭"
9 기도·내면	입으로 구한 인애와 발로 행한 인애 — 그 한 단어 헤세드를 캐묻지 않고 들고 들고 머문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같은 시대, 다른 이야기의 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1:1)라는 한 구절이 룻기를 사사기와 같은 무대에 걸어 둔다. 사사기의 도착점은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삿 21:25)였고, 그 권의 끝은 폭력의 부록이었다. 같은 시대에 룻기는 전쟁도 우상도 아닌 한 가정의 흉년과 한 며느리의 인애로 이야기를 연다. 칼이 아니라 곳간으로, 자기 소견의 어둠이 아니라 선대(chesed)의 빛으로. 같은 시대를 배경에 두고도 결이 다른 두 이야기가 나란히 놓인다.

2. **결 2 — 이름과 처지의 어긋남, 그러나 행동으로 자기를 말하는 한 사람:** 이 장의 이름들은 처지와 어긋난다. 떡집(Bet-lechem)에 떡이 없고, 엘리멜렉('내 하나님은 왕')이 왕 없는 시대에 죽고, 나오미('희락')가 스스로를 마라('쓰다')로 고쳐 부른다. 이름이 처지를 따라가지 못하는 어긋남이 장의 처음과 끝에 놓인다. 그런데 단 한 사람, 룻만은 이름 풀이 없이 행동으로 자기를 설명한다 — 불쫓음(davqah)으로, 맹세로, 함께 걷는 두 발로. 본문은 그 행동을 칭송 어구 없이 동작으로만 기록하고, 그 무평가가 독자를 관찰자로 세운다.

3. **결 3 — 비움에서 도착으로, full↔empty의 교차:** 1장은 한 번 바닥을 친다. 떠날 때 가졌던 남편·두 아들·곳간이 다 사라지고(1~5절), 나오미는 그 비움을 한 문장으로 정직하게 애통한다 — "풍족하게(male)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reqam) 돌아오게 하셨느니라"(21절). 채움과 비움이 한 절 안에서 마주 본다. 그런데 바로 다음 절에 보리 추수가 시작된다(22절). 당사자는 빈손이라 부르는데, 본문은 그 곁에 곧 채워질 밭을 깔아 둔다. 권의 하강이 가장 깊은 지점에서, 1장이 채움의 첫 단면을 미리 비춰 둔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 삿 21:25 — "왕이 없으므로" — 같은 사사 시대, 결이 다른 두 이야기의 평행.
- 창 12:10 — 기근에 애굽으로 거류한 아브람 — 흉년의 이주 모티프 전사.
- 창 35:19; 미 5:2 — 베들레헴 에브라다 — 지명과 후대 예언으로 열리는 다리.
- 신 23:3 — 모압 자손과 총회 — 룻의 맹세(1:16-17)가 닿는 율법의 경계.
- 신 24:19-21; 레 19:9-10 — 이삭줍기 규례 — 1:22 보리 추수가 여는 2장의 전사.
- 욥 1:21 — 주신 이도 거두신 이도 여호와 — 1:20-21 마라의 애통과 닿는 결.

- 삼상 1장 — 한나의 빈손과 채움 — 비움에서 채움의 평행 배경.
- 룻 2:20 — "기업을 무를 자 중 하나라" — 1장의 빈손이 향하는 헤세드.
- 룻 4:17-22 — 오벳·이새·다윗 — 빈손이 닿는 권의 도착점.
- 마 1:5 — 보아스가 룻에게서 오벳을 — 신약 계보로 이어지는 줄.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1:1의 흉년에서 시작한다 — 떡집이라는 이름의 곳에서도 떡이 비는 국면, 내가 떠나야 했던 마른 공간이 어디였는지 듣는다.
- **멈춤 1:** 1:8에서 멈춘다 — 줄 것이 없으며 사람을 놓아주려는 손과, 그 손에게 인애를 구하는 입. 놓음과 구함을 같이 진다.
- **멈춤 2:** 1:16에서 멈춘다 — 받을 것이 없는 줄 알면서 붙잡는 한 사람의 결단. 작은 동행의 약속이 그 사람의 하나님께로 닿는 자국.
- **끝:** 1:22에서 멈춘다 — 빈손이라 부르는 애통 곁에 시작되는 보리 추수. 내가 비었다 여기는 곳에 이미 비치는 첫 빛을 본다.

F · 자족성 점검

- [x] 비움(1~5)·길 위의 만류(6~15)·결단(16~18)·마라의 귀환(19~22)의 네 컷 완결
- [x] shuv 핵심어의 분포와 떠남(gur)→돌아옴의 액자
- [x] 룻의 맹세(16~17)의 언약 어휘(ammī·Elohai)와 신 23:3 경계와의 거리
- [x] 나오미→마라 개명의 애통과 male↔reqam 교차
- [x] 1:22 보리 추수기의 복선과 2장으로 열린 이월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룻기의 spine은 '흉년과 죽음의 빈손에서, 사람들의 헤세드를 엮어 구속의 계보(다윗)로 이어가신다'이며, destination은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4:17-22)다(book-telos). 권의 흐름은 흉년·죽음·룻의 결단(1장), 보아스의 밭의 이삭줍기 은혜(2장), 타작마당의 청원(3장), 성문의 고엘과 결혼·죽보(4장)로 움직이는데, 1장은 권의 개막 — 빈 공간에서 헤세드의 결단이 솟고 마라의 애통 끝에 추수기 도착이 첫 빛으로 놓이는 국면이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사사가가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삿 21:25)라는 어둠으로 닫은 바로 그 시대 한복판에서, 본문은 전쟁사의 큰 무대를 비우고 한 과부와 한 모압 여느리의 길 위에 카메라를 둔다. 권의 intent — 평범한 이들의 인애를 통해 구속의 계보를 이어가시며 이방 여인까지 그 줄기에 접붙이시는 — 의 첫 매듭이 여기서는 길 한복판의 맹세로 나타난다. 권의 heart, 빈손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감싸시는 자상함(2:20)과 약자를 향한 이삭줍기 규례의 배려는 1장에서 아직 보이지 않는다 — 다만 보리 추수기 한 줄(1:22)로 그 배려가 작동할 절기를 미리 깔아 둔다. 1장의 빈손이 4장의 다윗 계보로 이어지는 긴 호의 첫 접이며, 그 줄의 첫 매듭이 모압 여인의 결단이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흉년의 떠남(1:1 gur)에서 추수기의 도착(1:22)으로 / 입으로 구한 헤세드(1:8)에서 발로 행한 헤세드(1:16-18)로 / 풍족하게 나간 손(1:21 male)에서 비어 돌아온 손(1:21 reqam) 곁의 첫 빛으로 — 빈손의 애통이 다음 장의 채움을 준비하는 운동.

한 화살표로 좁히면, 1장은 '사사 시대'라는 어두운 국면 한복판에서 한 가정의 비움을 측량하고 그 끝에 작은 빛 한 줄을 걸어 두는 운동이다. 흥년의 떠남(1절)이 세 죽음(3~5절)으로, 죽음이 길 위의 만류와 갈림(6~15절)으로, 갈림이 룯의 결단(16~18절)으로 좁혀지며 화면이 비움에서 결단으로 한 번 바닥을 친다. 그러나 1장이 끝나도 나오미는 아직 위로받지 못한다 — 위로는 2장 보아스의 밭에서, 룯이 거두어 온 이삭을 보고서야 온다. 1장의 벡터는 권 전체를 '빈손의 흥년에서 이삭줍기의 은혜로, 은혜에서 타작마당의 청원으로, 청원에서 성문의 고엘과 다윗의 족보로' 끌고 가는 채움의 호의 첫 구간이며, 그 호 전체가 한 번의 돌보심(1:6 paqad)을 사람들의 인애를 통로로 흘러보내는 쪽으로 움직인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한 과부의 비극과 한 며느리의 의리다 — 누가 죽었고 누가 떠났고 누가 남았는지. 그러나 수면 아래서는 다른 것이 움직인다. 첫째, 끊어진 줄을 다시 잇는 손길이다. 흥년과 죽음으로 한 가정이 다 끊어졌는데, 가장 멀어 보이던 사람 — 모압 여인 — 이 그 끊어진 줄에 자기를 맨다. 본문은 그것을 기적으로 적지 않는다. 한 사람의 결단, 한 줄의 맹세, 함께 걷는 두 발로 적는다. 평범한 인애가 통로가 된다. 둘째, 무대 뒤로 물러난 돌보심이다. 여호와와 직접 행동은 6절의 paqad(돌보시사 양식을 주심) 한 번이고, 그 뒤로 그분은 무대 뒤에 계시며 사람의 헤세드를 통해 일하신다. 동행이 철회되었다는 문장은 없다 — 다만 보이지 않게 흐른다. 셋째, 정직의 보존이다. 본문은 나오미의 빈손을 미화하지 않는다.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21절)는 애통을 그대로 적는다. 빈손을 빈손이라 부르는 그 정직 곁에 보리밭을 갈아 돌 뿐, 본문은 위로의 말을 서두르지 않고 멈춘다.

J · 실존적 부름 — 불씨

나는 어떤 마른 곳간 앞에 서 있는가 — 떡집이라는 이름조차 비어 버린 국면에서, 입으로 구한 인애를 발로도 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 빈손의 썸은 정직한가 — 풍족하게 나갔던 손과 비어 돌아온 손을 둘 다 마주 보고 있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에게 헌신을 강요하지 않는다. 다만 떡 없는 떡집을 떠나는 가정을 보여 주고, 받을 것이 없는 줄 알면서 불쫓는 한 며느리를 보여 주고, 빈손을 빈손이라 부르는 한 여인의 정직을 보여 준다. 흥년과 세 죽음을 감추지 않는 이 권의 정직 — 그 정직이 오히려 독자가 들어설 문이 된다. 자기 마른 곳간을 미화하지 않고 적어 보는 일, 입으로만 구한 인애가 있다면 발로 옮겨 보는 일, 그리고 빈손이라 여기는 그 곁에 이미 시작된 추수가 있는지 들고 머무는 일. 한 번의 돌보심이 사람의 인애를 통로로 흐르고, 그 인애가 끊어진 계보를 다시 잇고, 그 계보 끝에 다윗이 놓이는 권이 이제 열린다 — 그 첫 매듭에 자기 이름을 넣어 보는 것, 그 거리가 독자를 부르는 불씨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빈손의 귀환은 끝났고 보리밭은 익어 간다 — 룯이 이삭을 주우러 나아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고(2:3), 약자를 향한 이삭줍기 규례가 은혜로 작동하기 시작한다.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chesed* — 선대·인애.

미해결 질문

룯기 1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귀 단계로 이월.

Q1. 1:16-17 — 모압 여인이 여호와와 이름을 곁어 맹세하는 것을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 신 23:3은 모압 자손이 여호와와 총회에 들지 못한다 했는데, 롯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하고 여호와와 이름으로 맹세한다. 율법의 경계와 한 여인의 맹세 사이의 거리를 어느 쪽으로도 닫지 않고 보존.

Q2. 1:8의 입으로 구한 헤세드와 롯이 발로 행한 헤세드 — 둘은 어떻게 한 단어 안에서 만나는가?

-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chesed)" 하고 며느리들에게 구한다. 그런데 그 인애를 실제로 행하는 사람은 롯이다. 하나님의 인애와 사람의 인애가 한 단어로 겹친 채, 본문은 그 겹침을 설명하지 않는다. 보존.

Q3. 1:14 — 오르바의 입맞춤(nashaq)과 롯의 붙좃음(davqah)을 본문은 왜 평가 없이 나란히 두는가?

- 같은 길 위에서 한 사람은 입맞추고 돌아서고 한 사람은 들러붙어 남는다. 본문은 오르바를 정죄하지도 롯을 칭송하지도 않고 두 동작만 기록한다. 갈림의 사실을 평가 없이 보존.

Q4. 1:20-21 — "나를 마라라 부르라"는 빈손의 애통은 원망인가, 신뢰의 정직인가?

- 나오미는 자기 처지를 여호와께 직접 돌린다 — 전능자가 괴롭게 하셨다,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욥 1:21과 닿는 애통의 정직인지, 닫힌 원망인지 본문은 어느 쪽으로도 단정하지 않는다. 발화의 방향만 두고 보존.

Q5. 1:22 — 빈손의 귀환 바로 다음에 놓인 "보리 추수 시작할 때"는 무엇을 예고하는가?

- 슬픔의 장 끝에 절기 정보 한 줄이 붙는다. 본문은 그 추수가 가져올 것을 1장에서 말하지 않는다. 빈손과 추수받을 같은 문장에 놓아둘 뿐 — 2장으로 열린 복선을 단정 없이 보존.

Q6. 1:1의 흥년으로 떠난 가정과 1:22의 빈손으로 돌아온 여인 — 그 사이에 무엇이 비워지고 무엇이 더해졌는가?

- 떠날 때 넷이 가졌던 것(남편·두 아들·곶간)이 다 비워지고, 돌아올 때 모압 여인 하나가 더해진다. 비워진 것과 더해진 것의 셈을 1장은 마치지 않는다. 권을 더 읽으며 이월.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룻기 2장

RUT-002 · 역사서 · 히브리어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2:3)는 한 줄이 본문은 우연이라 적고 독자는 섭리를 읽게 두는 국면으로 열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2:4)는 일터의 인사와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어찌하여 나를 돌보시나이까"(2:10)라는 룻의 절,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2:12)라는 보아스의 축복을 지나 — 곡식 다발에서 일부러 흘려 두라는 율법 너머의 헤세드(2:15-16)와 한 에바의 보리(2:17), 그리고 "우리 기업을 무를 자 중의 하나이니라"(2:20)에서 처음 떠오르는 고엘 어휘로 닫히는, 마라의 빈손에 첫 곡식이 채워지는 장.

관찰된 사실

룻기 2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 1장의 귀환 길에서 추수기의 보리밭으로 옮김 — 한 곳에 머무는 한 철의 일터.
- 앞당겨진 소개: 보아스의 이름이 등장(4절)보다 먼저 1절에서 호명됨 — 관객은 룻보다 먼저 그 이름을 알고 봄.
- 소품: 떨어진 낱알(leqet), 곡식 단(2:15), 일꾼의 물그릇(2:9), 식사(떡·초·볶은 곡식(2:14)), 저녁의 한 에바 보리(2:17) — 떨어진 낱알에서 안고 갈 한 에바로 무거워짐.
- 소재의 결: 앞은 줍는 동작(줍다·따르다·떨어진 것), 중간은 베푸는 어휘(마시라·먹으라·남기라·흘리라), 끝은 알아봄(어디서 주웠느냐·가까운 자·고엘).
- 형식 소재: 3절의 '우연히(vayyiqer miqreha)' — 본문 자신이 쓴 단어, 그러나 1절의 배치로 우연이 아니게 됨. / 4절의 축복 교환 — 주인과 일꾼이 신의 이름으로 안부를 주고받는 일터의 양식.
- 1장 끝의 빈손("비어 돌아왔다", 1:21)과 2장의 채움이 정면으로 마주 봄.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1장의 회색에서 천천히 데워지는 공기 — 4절(보아스 등장)과 8절("내 딸아")에서 한 단씩 부드러워짐.
- "은혜"의 거듭됨(2·10·13·20절) — 사람 사이를 흐르다 20절에서 여호와와 은혜로 올라감.
- 빛의 방향이 1장과 반대 — 비움에서 채움으로 밝아짐. 빈손으로 나간 아침이 한 에바의 저녁으로 닫힘.
- 환대의 점층 — 머물 곳(8) → 안전(9) → 물(9) → 식사(14) → 단 사이(15) → 일부러 흘림(16).
- 감각의 식탁 — 떡·초·볶은 곡식, 그리고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14절): 빈 그릇과 남은 곡식의 대비.
- 여호와와의 직접 발화 없음 — 인사·축복·배려라는 사람의 입을 통해 일하심. 발화 분포 관찰.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 23절: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 한 사람의 이름(소개)으로 열려, 그 밭에 머무는 한 철(거주)로 닫힘 — 낫선 이름에서 머무는 처소로.
- 어미의 이동: 소개의 종결("보아스더라")에서 머뭇의 종결("거주하니라")로. '함께'는 같으나 결의 그룻이 달라짐(1장 끝의 빈손 ↔ 2장 끝의 채움).
- 2절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 20절 "우리 기업을 무를 자 중의 하나" — 막연한 '누구'가 친족의 이름으로 좁혀짐.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보아스(1절 선(先)호명, 4절 등장 — 환대를 끌고 가는 자), 룻(이방 여인으로 줍고·절하고·묻고·듣는 자), 나오미(집에서 기다리다 19~20절 깨달음), 사환과 소년·소녀들, 그리고 무대 밖의 죽은 자들(엘리멜렉과 두 아들 — 20절에서 다시 호명).
- 룻의 자기 인식(10절): 스스로 '이방 여인(nokhriyah)'이라 칭함 — 자격이 아니라 은혜로 알아봄 (lehakkireni)을 읽음.
- 중심 사상: 율법을 넘어선 헤세드 — 율법은 '떨어진 것을 남기라'(레 19·신 24), 보아스는 '단 사이에서도 줍게 하고 일부러 흘려 두라'(15~16절)까지 더함.
- 알아봄의 구조: "이는 누구의 소녀냐"(5절) → 사환의 보고(6~7절) → "네가 행한 모든 것이 내게 알려졌느니라"(11절). 1장의 룻의 선언이 보아스의 귀에 가 닿음 — 행한 일과 알려진 일이 룻 모르게 이어짐.
- 옷자락/날개(12절): kanaf — 보아스가 '여호와와 날개 아래'를 축복, 3:9에서 룻이 같은 단어를 보아스에게 되돌려 씀.
- 고엘(20절): 처음 등장 — 나오미가 보아스를 '기업 무를 자 중의 하나'로 호명, 3~4장의 무름으로 가는 길이 열림.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3절): 소개와 우연 — 보아스의 앞당겨진 호명(1), 룻의 청과 출발(2), '우연히' 그 밭에 이름(3).
- 컷 2 (4~7절): 보아스의 등장 — 일터의 축복 교환(4), "이는 누구의 소녀냐"(5), 사환의 보고(6~7).
- 컷 3 (8~13절): 환대와 축복 — 머뭇·안전·물(8~9), 룻의 절과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10), 들은 행적과 '날개 아래'의 축복(11~12), 응답(13).
- 컷 4 (14~16절): 식사와 넘침 — 식사 초대와 배불리 먹고 남김(14),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일부러 흘려 두라(15~16).
- 컷 5 (17~23절): 귀환과 깨달음 — 한 에바(17), 귀환과 남김을 드림(18), 나오미의 물음과 깨달음(19~20), 보고와 한 철의 머뭇(21~23).
- 컷 3 내부의 환대 사다리: 머뭇 곳(8) → 안전(9) → 나눔(9) → 넘침(16). 사다리 한가운데 12절의 축복이 겹쳐 놓임.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 *ish gibbor chayil*(אִישׁ גִּבּוֹר חַיִּיל) — 유력한 자(1절). 재력·신망·덕을 아우름.
- *Boaz*(בּוֹאֵז) — 보아스(1절). 전통적으로 '그에게 능력이 있다'로 풀이됨.
- *miqreh*(מִקְרֶה) — 우연·마주침(3절). "vayyiqer miqreha"는 동족 표현으로 우연을 두 번 강조.

- *laqat*(לֶקֶט) — 줍다 / *leqet*(לֶקַעַ) — 떨어진 이삭, 가난한 자의 몫(2절; 레 19:9).
- *shalom*(שָׁלוֹם) 결의 인사(4절) —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 *nokhriyah*(נוֹכְרִיָּה) — 이방 여인·낯선 자(10절).
- *lehakkireni*(לְהַכִּירֵנִי) — 나를 알아봐 주심(10절). 어근 *nakar*. 19절 *makkirekha*(너를 돌본 자)와 같은 어근.
- *tachat kenafav*(תַּחַת כְּנָפָיו) — 그의 날개 아래(12절). / *kanaf*(כָּנַף) — 날개·옷자락, 3:9에서 되돌려 쓰임.
- *ephah*(עֶפָה) — 에바(17절). 곡물 부피 단위, 하루 줍기로는 이례적으로 많은 양.
- *goel*(גּוֹאֵל) — 기업 무를 자(20절). 이 장에서 처음 등장. 레 25·신 25의 어휘권.
- *chesed*(חֶסֶד) — 인애·언약적 은혜(20절).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도다"의 결.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 소개(1) + 우연의 도착(3) + 등장과 물음(4~7) + 환대·축복(8~13) + 넘침(14~16) + 귀환·깨달음(17~23) — 비움에서 채움으로 밝아지는 구조.
- 1:1의 앞당겨진 인물 소개 — 관객에게만 주어지는 정보 장치, 3절의 '우연'을 두 겹으로 읽게 함.
- 날개 모티프(2:12 *kanaf*)와 3:9의 되돌림 — 여호와와 날개를 비는 말이 사람을 통한 보호의 청원으로 옮겨 가는 평행.
- 2절의 막연한 '누구' ↔ 20절의 '기업 무를 자' — 이름 없는 길이 친족의 이름으로 도착하는 액자.
- 고엘(2:20)의 첫 등장 — 4장의 무름·결혼·죽보(4:13-22)로 가는 씨앗.
- 1장 끝의 빈손(1:21)과 2장 끝의 채움 — 가득/비움의 어휘가 비움/채움으로 뒤집힘.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 이삭줍기(*leqet*) 규례 — 밭 모퉁이와 떨어진 이삭을 가난한 자·거류민에게 남김(레 19:9; 23:22; 신 24:19). 이방 여인 룻의 줍기가 가능했던 법적 배경.
- 추수기 일터의 인사 — 신의 이름으로 안부를 주고받는 농경 공동체의 관습. 2:4의 배경.
- 이방 여인(*nokhriyah*)의 취약함 — 외부인 여성의 밭 노출. 보아스의 "건드리지 말라"(2:9) 명령의 배경.
- 에바(*ephah*) — 곡물 부피 단위(약 22리터 안팎). 한 사람의 하루 줍기로는 이례적으로 많은 양, 2:17의 풍성함의 척도.
- 고엘(*goel*) — 가난한 친족의 땅을 무르거나 후사를 잇는 책임을 진 친족(레 25:25; 신 25:5-10). 2:20에서 처음 호명되는 3~4장의 씨앗.
- LXX: 1절의 *gibbor chayil*을 *δυνατὸς ισχύρο*(무력 함의), 7절의 룻의 말이 난해한 본문비평 지점 — 어휘·전승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룻 2:2 ↔ 레 19:9-10 (떨어진 이삭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에게 — 이삭줍기의 율법 근거)
- 룻 2:15-16 ↔ 신 24:19 (잇은 곡식 단을 다시 가지러 가지 말고 객·고아·과부에게 — 헤세드의 율법 배경)
- 룻 2:12 ↔ 시 91:4; 17:8; 36:7; 57:1 (날개 그늘 아래의 피난처 — 보호 모티프의 시편 용례)
- 룻 2:12 ↔ 룻 3:9 (*kanaf* — 보아스의 축복이 룻의 청원으로 되돌아옴)
- 룻 2:11 ↔ 룻 1:16-17 (보아스가 들은 '행한 일' = 룻의 귀의 선언)
- 룻 2:20 ↔ 룻 1:20-21 (마라의 빈손에서 첫 회복 — 첫 축복이 마라의 입에서)

- 룻 2:20 ↔ 레 25:25; 신 25:5-10 (고엘·계대 — 무름 책임의 율법)
- 룻 2:20 ↔ 룻 4:13-17 (고엘 씨앗이 오벧·다윗 족보로 도착)
- 룻 2장 ↔ 룻 3장 (보아스의 밭 → 타작마당의 청원 — 환대가 무름으로)
- 룻 2장 ↔ 창 12:1-3 (땅을 떠나 복의 통로가 되는 행로 — 이방 여인 룻과 닿는 배경)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베들레헴의 아침. 자막 한 줄이 먼저 뜬다 —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화면에는 아직 그가 없다. 한 여인이 문을 나선다 —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줍겠나이다. 떨어진 낱알을 줍는 손, 그리고 자막 — 우연히, 보아스의 밭이었더라. 멀리서 한 사람이 들로 들어온다 —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일꾼들이 받는다 —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그가 묻는다 — 이는 누구의 소녀냐. 모압 여인이요, 아침부터 쉬지 않았나이다. 그가 다가가 말한다 — 내 딸아,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였으니 마시라. 룻이 땅에 엎드린다 —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어찌하여 나를 알아봐 주시나이까. 그가 답한다 — 네가 본토를 떠나 온 일이 알려졌다느니라, 여호와와 날개 아래에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식사 시간, 떡과 초와 볶은 곡식, 배불리 먹고 남기는 손. 낮은 명령 — 단 사이에서도 줍게 하고, 일부러 뽑아 버려서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해가 기운다. 떨어 보니 한 에바의 보리. 그것을 안고 성읍으로 들어간다. 문간에서 나 오미가 곡식을 본다 —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보아스의 이름을 듣자 얼굴이 바뀐다 — 그가 산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도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기업 무를 자 중의 하나이니라. 마지막 컷, 보리 추수에서 밀 추수까지 계절이 흐르고, 룻이 그 밭에 머문다. 화면이 천천히 밝아진 채로 닫힌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벌 제목: "우연히 그 밭이었더라 — 일부러 흘려 둔 곡식과 처음 떠오른 고엘"
- 초벌 부제: "빈손의 탄식(1:21) 다음 문장이 한 사람의 이름으로 놓이고(2:1), '우연히'(2:3) 그 밭에 이른 이방 여인이 율법을 넘어서 보아스의 헤세드(2:15-16)와 '날개 아래'의 축복(2:12)을 받아, 한 에바의 보리(2:17)와 함께 처음 떠오른 '고엘' 어휘(2:20)를 안고 마라의 집으로 돌아오는 — 헤세드가 빵이 되는 국면"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3개 기록)
-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이삭줍기 율법 배경 + 앞당겨진 인물 소개 장치 + 날개 모티프의 3:9 되돌림 + 고엘 어휘의 첫 등장)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2:3의 '우연히'를 섭리 교리의 증명으로 달지 않고, 본문이 우연이라 적은 어휘 사실과 1절의 앞당겨진 소개가 만드는 두 겹의 긴장으로만 보존. 어느 쪽으로도 못 박지 않음.

- 2:12의 '날개 아래'를 개종 신학이나 보편 구원론으로 일반화하지 않고, kanaf 어휘의 사실과 시 91편과의 이미지 닿음, 3:9의 되돌림이라는 평행 관찰로만 둬.
- 2:15-16의 헤세드를 자선 실천의 교훈으로 단정하지 않고, 율법(레 19:신 24)이 정한 '남기라'와 본문의 '일부러 흘리라' 사이의 형식 차이로만 기록. 보아스의 동기와 들은 것(11절) 사이의 여백을 비워 둬.
- 2:20의 고엘을 곧바로 그리스도 예표론으로 끌고 가지 않고, 이 장에서 처음 등장하는 어휘라는 사실과 3~4장으로 열린 씨앗이라는 구조 관찰로만 둬.
- 2:20의 '은혜 그치지 아니하심'을 나오미 신앙 회복의 완결로 단정하지 않고, 마라의 입에서 처음 나온 축복이라는 발화 사실과 그 전환을 본문이 설명하지 않는 여백으로 보존.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롯기 2장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2:1)는 앞당겨진 소개로 열려,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2:3)는 우연의 아이러니와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2:4)는 일터의 축복,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어찌하여 나를 돌보시나이까"(2:10)라는 롯의 절과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2:12)라는 보아스의 축복을 지나 — 곡식 다밭에서 일부러 흘려 두라는 율법 너머의 헤세드(2:15-16)와 한 에바의 보리(2:17), 그리고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무를 자 중의 하나이니라"(2:20)에서 처음 떠오른 고엘 어휘로 닫히는, 마라의 빈손에 첫 곡식이 채워지는 장이다.

한 문단: 베들레헴의 아침, 화면에는 아직 보아스가 없다. 그러나 자막이 먼저 그의 이름을 알린다 — 유력한 자,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한 여인이 막연히 문을 나선다 —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줍겠나이다. 떨어진 낱알을 줍는 손, 그리고 본문이 적는다 — 우연히, 그 보아스의 밭이었다. 들로 들어온 한 사람이 신의 이름으로 인사하고, 일꾼들이 같은 이름으로 받는다. 그가 멈춰 묻는다 — 이는 누구의 소녀냐. 모압 여인이라는 보고가 온다. 그가 다가가 '내 딸아'라 부르며 머물 곳과 안전과 물을 준다. 롯이 땅에 엎드린다 —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어찌하여 나를 알아봐 주시나이까. 그가 답한다 — 네가 본토를 떠나 온 일이 알려졌다느니라, 여호와와 날개 아래에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식사에 부르고, 배불리 먹고 남기고, 소년들에게 낮게 명한다 — 단 사이에서도 줍게 하고, 일부러 뽑아 흘려서 줍게 하라. 해가 기울고, 떨어 보니 한 에바의 보리. 그 것을 안고 들어선 문간에서 나오미가 곡식을 본다. 이름을 듣자 마라의 입에서 처음 축복이 나온다 — 그가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도다, 그 사람은 우리 기업을 무를 자 중의 하나이니라. 보리 추수에서 밀 추수까지 한 철이 흐르고, 빈손이던 두 여인은 채워진 채 함께 머문다.

B·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길에서 보리밭으로 옮긴 무대, 등장 전에 호명되는 이름(2:1), 떨어진 낱알에서 한 에바로 무거워지는 소품 — 줍기에서 베품으로, 베품에서 알아봄으로.
2 첫 느낌·분위기	천천히 데워지는 공기. 사람에게서 하늘로 올라가는 '은혜'. 비움에서 채움으로 밝아지는 빛. 보호에서 넘침으로 오르는 환대의 사다리.
3 시작과 끝	한 이름의 소개(2:1)로 열려 한 철의 머뭇(2:23)으로 닫힘. 막연한 '누구'(2:2)가 '기업 무를 자'(2:20)로 좁혀짐.

단계	핵심 발견
4 등장인물·사상	스스로 '이방 여인'이라 칭하는 롯. 율법을 넘어서신 헤세드. 롯 모르게 이어진 행한 일과 알려진 일. 처음 호명되는 고엘.
5 장면 컷	소개·우연(1~3)/등장·물음(4~7)/환대·축복(8~13)/넘침(14~16)/귀환·깨달음(17~23) 5컷. 컷 3 내부는 머뭇→안전→나눔→넘침의 사다리.
6 의문·발견·정보	앞당겨진 인물 소개 장치. 우연을 두 번 강조하는 본문과 우연이 아닌 배치. 산 자와 죽은 자에게 함께 닿는 복. 이삭줍기·에바·고엘 배경.
7 동영상	호명되는 이름 → 우연의 도착 → 일터의 축복 → 절과 날개 아래 → 배불리 먹고 남김 → 일부러 흘린 곡식 → 한 에바 → 마라의 첫 축복과 고엘.
8 초별 제목·부제	"우연히 그 밭이었더라 — 일부러 흘려 둔 곡식과 처음 떠오른 고엘"
9 기도·내면	본문이 우연이라 적은 한 줄 — 섭리라 못 박지 않고, '우연히' 안의 마주침을 들고 머문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우연이라 적힌 도착, 그러나 미리 호명된 이름:** 본문은 3절에서 분명히 '우연히(miqreh)'라고 적는다 — 그것도 동족 표현으로 두 번 강조한다. 롯은 어느 밭으로 갈지 정한 바 없이 막연히 나섰고("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2:2), 밭걸음이 닿은 곳이 마침 보아스의 밭이었다. 그런데 본문은 그 도착을 우연으로만 두지 않는다. 1절에서 이미 보아스를 미리 소개해 두었기 때문이다. 관객은 롯보다 먼저 그 이름을 쥐고 3절을 읽는다. 본문은 우연이라 적고, 배치로 우연이 아니게 한다. 어느 쪽도 지우지 않는다 — 정말 우연이었다고도, 처음부터 정해진 길이었다고도 못 박지 않는다. 사람의 자유로운 걸음과 보이지 않는 인도가 한 절 안에 겹쳐 있고, 본문은 그 겹침을 설명 없이 둔다. 독자를 그 두 겹 앞에 세워 두는 것 — 그것이 이 장의 첫 결이다.
- 결 2 — 율법이 정한 몫, 그 위에 일부러 얹은 헤세드:** 이삭줍기는 율법이다. 떨어진 이삭과 밭 모퉁이는 가난한 자와 거류민의 몫이라고 레위기 19장과 신명기 24장이 정해 두었다. 보아스가 거기까지만 했어도 그는 율법을 지킨 사람이다. 그런데 그는 율법 위에 더 얹는다 — 단 사이에서도 줌게 하고(2:15), 곡식 다발에서 일부러 조금씩 뽑아 버려서 줌게 하고, 꾸짖지 말라고 한다(2:16). 율법이 '남겨 두라'였다면 보아스는 '일부러 흘려 두라'까지 간다. 정해진 몫과 일부러의 흘림 사이, 그 차이의 폭이 헤세드(chesed)의 결이다. 그리고 본문은 그가 왜 더 베풀었는지 못 박지 않는다 — 롯의 행적을 들었다고는 하나(2:11), '그래서'라는 인과를 비워 둔다. 들은 것과 베푼 것 사이의 그 여백이, 헤세드를 계산이 아니라 선물로 읽게 한다.
- 결 3 — 빈손에 채워지는 첫 곡식, 처음 떨어지는 한 어휘:** 1장은 "가득히 나갔더니 비어 돌아왔다"(1:21)로 닫혔다. 2장은 그 빈손에 처음으로 곡식이 들어오는 장이다 — 한 에바의 보리(2:17). 그런데 본문은 그 채움을 큰 기적으로 그리지 않는다. 율법이 정한 이삭줍기와 한 사람의 율법 너머 배려라는, 지극히 평범한 통로로 온다. 그리고 그 채움이 그릇에서 멈추지 않는다. 마라라 불러 달라던 입에서 처음으로 축복이 나온다 — "여호와께서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도다"(2:20). 같은 절에서 한 어휘가 처음 떨어진다 — '기업 무를 자(goel)'. 이 단어는 2장 안에서 열매 맺지 않는다. 다만 씨앗으로 떨어져, 타작마당(3장)과 성문(4장)을 지나 오벳과 다윗의 족보(4:17-22)에서야 열린다. 빈손에 첫 곡식이 채워지는 하루가, 권의 끝까지 갈 한 단어를 같이 흘려보낸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 롯 1:20-21 — 마라의 빈손 — 2:20에서 첫 회복이 시작되는 대비.
- 롯 1:16-17 — 롯의 귀의 선언 — 보아스가 2:11에서 회상하는 '행한 일'의 전사.

- 레 19:9-10; 23:22 — 이삭줍기 규례 — 2장 줍기의 율법 근거.
- 신 24:19 — 잇은 곡식 단을 객·고아·과부에게 — 2:15-16 헤세드의 율법 배경.
- 시 91:4; 17:8; 57:1 — 날개 그늘 아래의 피난처 — 2:12 tachat kenafav의 이미지.
- 룻 3:9 — "당신의 옷자락(kanaf)을 펴 덮으소서" — 2:12 축복이 청원으로 되돌아옴.
- 레 25:25; 신 25:5-10 — 고엘·계대 규례 — 2:20 어휘가 닿는 율법.
- 룻 4:13-17 — 오벳의 출생과 다윗 족보 — 2:20 고엘 씨앗이 도착하는 권의 끝.
- 창 12:1-3 — 땅을 떠나 복의 통로가 되는 부름 — 이방 여인 룻의 행로와 닿는 배경.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2:2의 막연한 '누구'에서 시작한다 — 정해진 길이 없을 때 그저 한 걸음을 떼는 손을 본다.
- **멈춤 1:** 2:3에서 멈춘다 — 본문이 적은 '우연히'와 1절의 미리 호명된 이름. 두 겹을 한쪽으로 닫지 않고 같이 켜진다.
- **멈춤 2:** 2:16에서 멈춘다 — 율법 위에 일부러 얹어 흘려 두는 손. 정해진 뭇과 더 얹은 뭇 사이의 폭을 본다.
- **끝:** 2:20에서 멈춘다 — 마라의 입에서 나온 첫 축복과 처음 떨어진 고엘. 빈손이 채워진 그 국면에 권의 끝까지 갈 한 단어가 같이 놓인다.

F · 자족성 점검

- [x] 소개(1)·우연의 도착(3)·등장과 물음(4~7)·환대와 축복(8~13)·넘침(14~16)·귀환과 깨달음(17~23)의 여섯 단 완결
- [x] 환대의 사다리(머뭇→안전→나눔→넘침)와 율법(레 19·신 24) 위에 얹은 헤세드(15~16절)
- [x] '우연히'(2:3)의 두 겹과 앞당겨진 인물 소개(2:1)의 장치
- [x] 날개 모티프(2:12 kanaf)와 3:9의 되돌림, 고엘(2:20)의 첫 등장
- [x] 1:21 빈손과 2:17 한 에바의 대비, 마라의 입에서 나온 첫 축복(2:20)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룻기의 spine은 '흉년과 죽음의 빈손에서, 사람들의 헤세드를 엮어 구속의 계보(다윗)로 이어가신다'이며, destination은 오벳·이새·다윗으로 닫히는 족보(4:17-22)다. 권의 흐름은 흉년·죽음·룻의 결단(1장), 보아스의 밭(2장), 타작마당의 청원(3장), 성문의 고엘·결혼·족보(4장)로 움직이는데, 2장은 헤세드가 뺨이 되는 국면이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사사 시대의 어둠 한복판("그 때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1:1)에서 한 평범한 집안의 회복이 시작되고, 그 회복이 사람들의 인애를 통로로 삼는다. 권의 heart — 빈손을 감싸시는 자상함, 이삭줍기의 배려 — 가 여기서는 율법의 규례(레 19·신 24) 위에 보아스가 일부러 얹은 흘림으로 구체화된다. 1장에서 죽음으로 비워진 그릇에, 2장은 한 에바의 보리를 채우고, 같은 절(2:20)에서 '고엘'이라는 어휘를 처음 떨어뜨린다. 이 단어는 3장 타작마당의 청원과 4장 성문의 무릎을 지나, 오벳의 출생과 다윗의 이름에서야 열린다. 평범한 밭의 하루가 왕의 계보로 가는 첫 다리이며, 그 다리의 재료가 거창한 능력이 아니라 떨어진 이삭과 일부러 흘린 곡식이라는 것 — 이 권은 구속의 큰 호가 가장 작은 인애를 엮어 짜인다는 것을 2장에서 처음 손에 쥐여 준다.

우연(2:3 miqreh)에서 친족(2:20 goel)으로 / 막연한 누구(2:2)에서 기업 무를 자(2:20)로 / 빈손의 아침에서 한 에바의 저녁으로(2:17) — 평범한 인애가 빈손을 회복시키고 한 어휘를 권의 끝까지 흘려보내는 운동.

한 화살표로 좁히면, 2장은 1장이 비워 둔 그릇을 채우고, 동시에 권의 끝까지 갈 단어 하나를 입구에 떨어뜨리는 운동이다. 막연한 청(2절)이 우연의 도착(3절)을 지나, 보아스의 알아봄(11절)과 환대(8~16절)를 거쳐, '우리과 가까운 자, 기업 무를 자'(20절)라는 호칭으로 도착한다. 화면은 1장과 정확히 반대로 — 비움에서 채움으로, 회색에서 따뜻함으로 — 이동한다. 그러나 2장이 끝나도 집안의 미래는 아직 비어 있다. 마지막 절은 '추수를 마치기까지 머물렀다'(2:23)일 뿐, 무름도 결혼도 아직 오지 않았다. 2장의 벡터는 전권을 '빈손의 회복에서 청원으로, 청원에서 무름으로, 무름에서 다윗의 족보로' 끌고 가는 긴 채움의 첫 구간이며, 그 채움 전체가 가장 작은 헤세드를 엮어 구속의 계보를 짜는 쪽으로 움직인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한 여인의 하루 품삯이다 — 떨어진 이삭을 주워 한 에바를 얻은 이야기.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다른 것이 움직인다. 첫째, 빈손의 회복이다. 1장의 나오미는 가득히 나갔다가 비어 돌아왔다고 탄식했다. 2장은 그 빈손에 처음으로 곡식이 들어오는 장이며, 그 채움이 큰 기적이 아니라 율법의 규례와 한 사람의 율법 너머 배려라는 평범한 통로로 온다. 비범한 구원이 평범한 인애를 통해 빈손에 닿는다. 둘째, 알지 못하는 채 이어지는 끈이다. 릿은 자기가 1장에서 한 일(귀의 선언)이 보아스의 귀에 가 닿아 있는 줄 모르고 밭에 나간다. 보아스는 그 행적을 들었다고 말하고(2:11), 릿은 자기가 행한 일의 열매를 자기도 모르게 받는다. 행한 일과 알려진 일이 당사자 모르게 연결되어 있다. 셋째, 직접 등장하지 않는 분의 일하심이다. 이 장에 여호와와의 직접 발화는 없다. 그러나 일터의 인사("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2:4)와 보아스의 축복("그의 날개 아래에", 2:12)과 나오미의 깨달음("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도다", 2:20)을 통해, 무대에 없는 분이 계속 일하고 계신 듯 보인다. 본문은 그것을 단정하지 않고, 사람들의 입에 담긴 그 이름의 거듭됨으로만 보여 주고 멈춘다.

J · 실존적 부름 — 불씨

나는 어떤 '우연히' 안에 서 있는가 — 막연히 댄 한 걸음이 닿은 곳을, 우연으로만 셈하고 지나치지는 않았는가. 그리고 내가 일부러 흘려 둘 수 있는 곡식은 무엇인가 — 정해진 몫만 지키고, 더 얹어 흘리는 손은 거두어 둔 것은 아닌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지 않는다. 다만 막연히 문을 나서는 한 여인을 보여 주고, 우연이라 적힌 도착 위에 미리 놓인 한 이름을 보여 주고, 율법이 정한 몫 위에 일부러 곡식을 흘리는 손을 보여 준다. 떨어진 이삭과 한 에바의 보리라는 작은 것들로 빈손을 채우는 이 권의 결 — 그 평범함이 오히려 독자가 들어설 문이 된다. 자기 하루의 '우연히'를 다시 들여다보는 일, 정해진 몫 너머로 일부러 흘려 둘 수 있는 무엇을 헤아려 보는 일, 그리고 빈손이던 입에서 처음 축복이 나오던 그 전환(2:20)을 자기 안에서 찾아보는 일. 헤세드가 빵이 되고, 빵이 한 어휘를 낳고, 그 어휘가 권의 끝에서 다윗의 이름이 되는 — 그 긴 엮음의 첫 보리에 자기 손을 얹어 보는 것, 그 작음이 독자를 부르는 불씨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추수는 끝났고 빈손에 첫 곡식이 들어왔다 — 보리와 밀을 다 거둔 뒤, 나오미가 릿을 한밤의 타작마당으로 보내어 보아스의 밭치에 누워 '옷자락(kanaf)을 펴 덮으소서'라고 청하게 한다(3:1-9).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chesed* — 그치지 아니하는 은혜.

미해결 질문

룻기 2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김 단계로 이월.

Q1. 2:3 — 본문은 왜 '우연히'라고 적으면서 1절에서 보아스를 미리 소개하는가?

- "vayyiqer miqreha"는 우연을 두 번 강조하는 표현이고, 1절의 앞당겨진 소개는 그 우연을 우연으로만 두지 않는다. 본문은 사람의 자유로운 발걸음과 보이지 않는 인도를 한 절 안에 겹쳐 두고 어느 쪽으로도 닫지 않는다. 그 두 겹을 보존.

Q2. 2:15-16 — 보아스는 왜 율법이 정한 이삭줍기보다 더 베푸는가?

- 떨어진 이삭만 줍게 해도 율법은 지킨 것이다. 그런데 보아스는 단 사이에서도 줍게 하고, 일부러 곡식 다 밭에서 뽑아 흘리라고 한다. 11절에서 룻의 행적을 들었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더 줬다'고 인과를 못 박지는 않는다. 들은 것과 베푼 것 사이의 여백을 메우지 않고 보존.

Q3. 2:12 — '여호와와 날개 아래'가 3:9에서 룻의 입으로 되돌아오는 것은 무엇을 잇는가?

- 보아스가 여호와와 날개(kanaf) 아래의 보호를 축복하고, 한 장 뒤 룻이 같은 단어로 "당신의 옷자락을 펴 덮으소서"라고 청한다. 하늘의 보호를 비는 말이 사람을 통한 보호의 청원으로 옮겨 가는 그 어휘의 이동을, 의미를 단정하지 않고 평행의 사실로만 기록. 보존.

Q4. 2:20 — 마라의 입에서 처음 나온 축복 사이에 무엇이 지나갔는가?

- 나오미는 1장 끝에서 "나를 마라라 부르라"고 했는데, 2장 20절에서 처음으로 "여호와께서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도다"라고 말한다. 본문은 그 마음의 전환을 설명하지 않고, 보리를 보고 묻고 이름을 듣고 곧바로 축복으로 넘어간다. 그 사이의 여백을 보존.

Q5. 2:20 — "산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에서 복의 주어와 대상은 누구인가?

- '산 자'는 룻과 나오미, '죽은 자'는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다. 1장에서 죽음으로 끝났던 세 남자가 헤세드의 대상으로 다시 호명된다. 그리고 이 문장의 주어가 보아스인지 여호와인지 히브리어로 약간 열려 있어, 사람의 은혜와 하늘의 은혜가 한 문장에 겹친다. 그 겹침을 어느 쪽으로도 닫지 않고 보존.

Q6. 2:20 — 처음 등장한 '고엘'은 이 장 안에서 어디까지 열려 있는가?

- 나오미가 보아스를 '기업 무를 자 중의 하나'라고 부르는 순간, 2장의 환대가 3~4장의 무름으로 이어질 길이 처음 열린다. 그러나 2장은 그 길을 걷지 않고 어휘만 떨어뜨린다 — '중의 하나'라는 말은 다른 고엘의 존재도 암시한다. 그 미완을 권을 더 읽으며 열어 둔다.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룻기 3장

RUT-003 · 역사서 · 히브리어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3:1)는 시어머니의 청에서 열려, 타작마당의 밤(3:7-9)에서 룻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3:9)로 2:12의 '날개'를 보아스에게 되돌려 구하고 —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다 아느니라"(3:11)는 응답과 "나보다 더 가까운 자가 있으니"(3:12)의 신중함을 지나, 여섯 번 되는 보리와 새벽 전 귀가(3:14-17)로 닫히는, 헤세드가 청혼이 되는 룻기의 밤.

관찰된 사실

룻기 3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 둘: 저녁의 환한 실내(나오미의 집, 1~5절)와 한밤의 타작마당(goren, 6~15절). 2장의 환한 낮 들녘과 대비되는 어두운 밤 마당.
- 무대의 빛: 실내의 환함 → 마당의 어둠 → 새벽 직전의 회색(14절, "서로 알아보지 못할 만큼 어두울 때")으로 이동.
- 소품: 단장의 물건(씻을 물·기름·의복, 3절), 곡식 더미(7절), 옷자락(kanaf, 9절), 여섯 번 되는 보리와 겔옷(shesh seorim, 15절).
- 소품의 짝: 단장의 기름(3절)과 어둠(8·14절), 펴 달라 청한 옷자락(9절)과 펴서 보리를 받는 겔옷(15절).
- 소재의 흐름: 준비(구하다·씻다·바르다·입다·내려가다) → 청원(덮으소서) → 응답(복 주시기를·행하리라·두려워 말라) → 보냄(일어나다·이고 가다·앉아 있으라).
- 형식 소재: 'שמ'(manoach 1절 / nuach 18절)으로 묶인 액자, 4절의 지시("발치를 들고 거기 누우라")가 6절의 실행("명령한 대로 다 하니라")으로 받아지는 지시·실행의 쌍.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조마조마함이 정중함으로 풀리는 공기 — 8절의 "네가 누구냐"의 멧음이 9절의 또렷한 대답으로 곧 풀림.
- "내 딸아"(biti)가 후렴처럼 감쌌 — 1·10·11·16·18절. 청혼의 밤을 덮는 말이 연애의 언어가 아니라 가족의 호칭.
- 어두운데 따뜻하고 고요함 — 인물이 적고 목소리가 낮고 동작이 느림. 14절은 두 사람의 평판을 어둠으로 가려 줌.
- 친밀함과 제도가 겹치는 어조 — 9절의 '기업 무를 자(goel)', 12~13절의 '더 가까운 자'가 사적 장면에서 울법 용어로 들어옴.
- 두 손의 감각 — 단장하는 손(3절)과 보리를 되어 담는 손(15절). 정돈하는 손과 빈손으로 보내지 않는 손.
- 여호와와의 직접 발화 없음 — 사람의 입을 통해 이름이 두 번 불림(10·13절). 하늘이 인애를 통해 일함. 배경.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 18절: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 나오미의 말로 열려 나오미의 말로 닫힘 — 두 절 다 '내 딸아'로 시작하고 '쉬'를 말함. 구함(1절)에서 신뢰(18절)로 바뀐 쉬.
- 어미의 이동: "구하여야 하지 않겠느냐"(청유·다짐)에서 "앉아 있으라"(권면)로 — 움직임의 지시에서 멈춤의 권면으로.
- 1절 "안식할 곳을 구하여"(나오미가 롯을 위해) ↔ 9절 "옷자락을 펴 덮으소서"(롯이 직접) — 구함의 주체가 시어머니에서 며느리로 이동.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나오미(계획과 신뢰의 화자), 롯(시킨 대로 행하고 어둠 속에서 또렷이 청하는 사람), 보아스(놀라 깨고 축복으로 응답하며 순서를 밝히는 사람), 그리고 무대 밖의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12절 — 이름 없이 4장으로 남겨진 네 번째 인물).
- 중심 사상: 헤세드(chesed)의 연쇄 — 보아스가 롯의 청을 "처음보다 나중에 더한 인애"(10절)로 읽음. 사랑의 청원을 죽은 자의 가문과 시어머니를 향한 신실함으로 해석.
- 청혼이자 고엘 청구: 9절이 혼인의 청('덮으소서')과 제도의 호명('기업을 무를 자')을 한 문장에 겹침. 청혼의 주체가 여성(롯).
- 보아스의 신중함: "네가 말한 대로 다 행하리라"(11절) 직후 "나보다 더 가까운 자가 있으니"(12절). 마음은 정해졌으나 권리의 순서를 건너뛰지 않음. 13절의 맹세로 무를의 책임을 약속.
- kanaf의 회수(9절): 2:12에서 보아스가 빌어 준 '여호와와 날개'를, 롯이 '보아스의 옷자락'으로 그 자신에게 청구. 빌어 준 보호의 도구가 되도록 지목.
- 빈손에서 채움(15·17절): "빈손(reqam)으로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 1:21의 '빈손' 탄식이 보리 여섯 번의 채움으로. eshet chayil(현숙한 여자, 11절)이 이방 여인에게 얹힘(잠 31:10).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5절): 집 안의 계획 — 안식할 곳을 구하는 청(1), 타작마당 정보(2), 단장과 하강의 지시(3), 발치 지시(4), 롯의 순종(5).
- 컷 2 (6~9절): 밤 마당의 청원 — 시킨 대로 행함(6), 보아스의 누움(7), 놀라 껌과 "네가 누구냐"(8), 청 — "옷자락을 펴 덮으소서... 기업을 무를 자가 됨이니이다"(9).
- 컷 3 (10~13절): 응답과 맹세 — 축복과 인애의 인정(10), "현숙한 여자... 다 행하리라"(11), 더 가까운 고엘(12), 새벽까지의 유숙과 무를의 맹세(13).
- 컷 4 (14~18절): 귀가와 확신 — 어둠 속의 일어남과 평판의 보호(14), 여섯 번 되는 보리(15), 시어머니의 물음(16), 보리와 전갈의 전달(17), "앉아 있으라... 쉬지 아니하리라"(18).
- 축의 무게: 9절의 청과 10~11절의 응답이 절정이며, 12절의 '그러나(더 가까운 자)'가 곧바로 유보를 놓아 3장을 4장으로 손 내밀게 함. 보리 여섯 번은 협상 진행의 증표(18절에서 나오미가 읽어 냄).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 *manoach*(מְנוּחַ) — 안식할 곳·쉬 처소(1절). 1:9 *menuchah*와 같은 어근 *nuach*.
- *goren*(גֹּרֵן) — 타작마당(2절). / *margelot*(מַרְגְּלוֹת) — 발치·발이 있는 쪽(4·7·8·14절).
- *shakhav*(שָׁכַב) — 눕다(4·7·8·13·14절). 밤 마당의 동사. / *layil*(לַיִל) — 밤.
- *kanaf*(כָּנַף) — 옷자락이자 날개(9절). 2:12의 '여호와와 날개'와 같은 단어.
- *shifchah*(2:13, שִׁפְחָה, 룻의 자칭) → *amah*(3:9, אִמָּה, 룻의 자칭) — 낮은 종에서 혼인 격의 여종으로 호칭이 한 단계 올라감. 형태 관찰.
- *charad*(חָרַד) — 놀라 떨다·깜짝 깨다(8절). / *chesed*(חֶסֶד) — 인애·신실한 사랑(10절).
- *eshet chayil*(אִשְׁתַּיִל) — 현숙한·역량 있는 여인(11절). 잠 31:10의 표현. 2:1 보아스의 *gibbor chayil*(유력한 자)과 같은 *chayil*.
- *goel*(גּוֹאֵל) — 기업 무를 자(9·12·13절). 어근 *ga'al*(되사다·무르다·구속하다).
- *shesh seorim*(שֵׁשׁ שְׁעָרִים) — 여섯 번 되는 보리(15절). 단위가 본문에 비어 있음.
- *reqam*(רִקַּם) — 빈손으로(17절). 1:21의 빈손 탄식과 같은 단어.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 '침'의 액자: *manoach*(1절)와 *nuach*(18절)가 장의 처음과 끝을 묶음 — 구함에서 신뢰로 바뀐 침.
- *kanaf*의 회수: 2:12(보아스가 룻에게 빈 '여호와와 날개') → 3:9(룻이 보아스에게 청한 '당신의 옷자락') — 같은 단어, 주체의 역전.
- 지시·실행의 쌍: 4절의 명령("발치를 들고 거기 누우라")이 6절의 실행("명령한 대로 다 하니라")으로 받아 짐.
- 절정 다음의 유보: 11절 수락("다 행하리라") 직후 12절 유보("더 가까운 자가 있으니") — 사랑의 절정이 권리의 순서로 한 박자 늦춰짐.
- 빈손→채움의 호: 1:21의 *reqam*(빈손)이 3:17의 *reqam*(빈손으로 가지 말라)으로 — 탄식의 단어가 채움의 단어로.
- *eshet chayil*의 적용: 이방(모압) 여인 룻에게 잠 31:10의 단어가 얹힘. 보아스(*gibbor chayil*)와 짝지어지는 역량의 어휘.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 타작마당(*goren*) — 추수기에 곡식을 밟고 키질하는 공동 공간이자, 도둑을 막으려 밤에 곡식 곁에서 자던 곳. 보아스의 누움(7절)의 배경.
- 옷자락(*kanaf*)을 펴 덮음 — 고대 근동의 보호·혼인 언약을 상징하는 몸짓. 겔 16:8("내 옷으로 너를 덮어")와 같은 겔. 3:9의 배경.
- 고엘(*goel*) — 친족이 땅·이름·과부를 거두어 무르는 친족 구속 제도. 신 25:5-10 수혼 규례, 레 25:25 무름 규례가 율법 배경. 3:12-13의 전사.
- 단장(씻고 기름 바르고 옷 갈아입음) — 곤핍의 끝을 표시하고 새 국면으로 들어서는 의례적 몸짓. 삼하 12:20의 다윗과 같은 겔. 3:3의 배경.
- 여섯 번 되는 보리를 겉옷에 싸 줌 — 빈손으로 보내지 않는 호의이자 협상 진행의 증표. 3:15-17의 배경.
- LXX: 3:15의 주어(보아스/룻) 차이, 3:17의 측량 단위 미명시, 3:5의 케레/케티브 — 본문비평·번역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룻 3:9 ↔ 룻 2:12 (옷자락/날개 kanaf — 보아스가 빈 축복이 룻의 청원으로 회수됨)
- 룻 3:1 ↔ 룻 1:9 (안식할 곳 manoch/menuchah — 나오미가 빌던 쉼의 전사)
- 룻 3:9·12·13 ↔ 룻 2:20 (goel 어휘의 도입 — 기업 무를 자의 호명)
- 룻 3:11 ↔ 잠 31:10-31 (eshet chayil — 이방 여인에게 얹힌 '현숙한 여인')
- 룻 3:9 ↔ 겔 16:8 (옷으로 덮음 — 언약의 결)
- 룻 3:12-13 ↔ 신 25:5-10; 레 25:25 (수혼·무름 규례 — 고엘 제도의 율법 배경)
- 룻 3:17 ↔ 룻 1:21 (빈손 reqam — 탄식에서 채움으로)
- 룻 3:3 ↔ 삼하 12:20 (씻고 기름 바르고 — 단장의 결)
- 룻 3장 ↔ 룻 4:1-12 (성문의 고엘 절차 — 청구가 향하는 다음 장)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저녁의 실내, 등잔 결의 두 여인. 시어머니의 목소리 —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며느리가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는다. 어둠이 내리고 카메라가 마당으로 내려간다 — 보리 더미, 그 끝에 누워 잠든 한 사람. 발소리 없이 한 여인이 밭치에 가만히 눕는다. 밤이 깊고, 그가 놀라 떨며 일어난다 — 네가 누구냐. 포렛한 대답 —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무를 자가 됨이니이다. 낮고 따뜻한 응답 —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네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두려워 말라, 내가 말한 대로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그러나 — 나보다 더 가까운 자가 있으니, 아침까지 머물라. 새벽 직전의 회색 빛, 서로 알아볼 수 없는 어둠 속에서 한 여인이 일어난다. 겹옷이 퍼지고 보리가 여섯 번 부어진 다 — 빈손으로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보리를 인 여인이 성읍으로 들어간다. 다시 환한 실내 —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보리가 내려놓이고, 시어머니의 말이 화면을 닫는다 —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기다림 속에 앉은 두 여인. 잠전.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벌 제목: "당신의 옷자락을 펴 덮으소서 — 빌어 준 날개를 그에게 청하다"
- 초벌 부제: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안식할 곳을 구하는 청(3:1)으로 열려, 룻이 2:12의 '날개(kanaf)'를 보아스에게 되돌려 청하고(3:9) — 보아스가 그 청을 헤세드로 읽어 '현숙한 여자(eshet chayil)'라 부르되(3:11) 더 가까운 고엘의 권리를 먼저 두는 신중함 위에서, 여섯 번 되는 보리와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3:18)의 확신으로 닫히는, 헤세드가 청혼이 되는 밤"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4개 기록)
-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kanaf 회수 + eshet chayil 적용 + '쉼'의 액자 + ANE 타작마당·옷자락·고엘·단장 배경)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 선정적 해석 0건(친밀한 장면을 절제·존중으로 관찰)

9단계 자가감사

-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3:7-9의 밤 장면을 선정적 추측으로 채우지 않고, 본문이 쓴 절제된 동사(누웠다·놀라 깬다·발치·새벽까지 머물렀다)와 14절의 평판 보호라는 본문의 배려를 그대로 기록. 빈 곳을 빈 곳으로 보존.
- 3:9의 kanaf 회수를 특정 결혼 신학의 증명으로 끌고 가지 않고, 2:12의 단어가 주체를 바꾸어 다시 나온다는 어휘의 형태 관찰로만 둬.
- 3:11의 eshet chayil을 '이방인의 모범적 회심'이라는 교훈으로 일반화하지 않고, 잠 31:10의 표현이 모압 여인에게 얹혔다는 본문 사실과 chayil 어휘의 짝(2:1 보아스)으로만 기록.
- 3:10의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를 룯의 속마음(호감/신실)에 대한 단정으로 닫지 않고, 보아스가 그것을 헤세드로 읽은 발화 사실과 룯의 동기에 대한 본문의 침묵으로 보존.
- 3:12-13의 '더 가까운 고엘'을 보아스의 소극성으로 평가하지 않고, 권리의 순서를 지키는 절차 사실과 4장으로 열린 이월로만 둬.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룯기 3장은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3:1)는 시어머니의 청으로 열려, 단장하고 내려간 타작마당의 밤(3:7)에서 룯이 "나는 당신의 여종 룯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무를 자가 됨이니이다"(3:9)로 2:12의 '날개(kanaf)'를 보아스에게 되돌려 청하고 — "네 베풀 인애(chesed)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네가 현숙한 여자(eshet chayil)인 줄을 다 아느니라"(3:10-11)는 응답과 "나보다 더 가까운 자가 있으니"(3:12)의 신중함을 지나, 여섯 번 되는 보리와 새벽 전 귀가(3:14-17)를 거쳐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3:18)는 확신으로 닫히는, 헤세드가 청혼이 되는 룯기의 밤이다.

한 문단: 저녁의 실내, 등잔 곁에 두 여인이 마주 앉는다. 내 딸아 —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쉼 곳을 구하겠다고 말한다. 며느리가 씻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는다. 어둠이 내리고 무대가 타작마당으로 옮겨진다. 보리 더미 끝에 한 사람이 누워 잠들어 있고, 한 여인이 발치에 가만히 눕는다. 한밤중에 그가 놀라 깨어 묻는다 — 네가 누구냐. 또렷한 대답이 어둠을 가르다 —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당신이 기업을 무를 자가 됨이니이다. 낮고 따뜻한 응답이 돌아온다 —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네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두려워 말라. 그러나 한 그림자가 스친다 — 나보다 더 가까운 자가 있으니, 아침까지 머물라. 새벽 직전, 서로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어둠 속에서 여인이 일어난다. 겹옷이 펴지고 보리가 여섯 번 부어진다 — 빈손으로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보리를 인 여인이 성읍으로 들어가고, 다시 환한 실내에서 시어머니가 묻는다 —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마지막 말이 화면을 닫는다 —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두 여인이 기다림 속에 앉는다. 빈손이 채워지기 시작했으나, 일은 아직 성문의 아침을 기다린다.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환한 실내에서 어두운 밤 마당으로 옮겨지는 무대, 단장의 기름·옷자락·여섯 번 되는 보리라는 소품 — '쉽'으로 묶인 액자.
2 첫 느낌·분위기	조마조마함이 정중함으로 풀리는 공기. '내 딸아'의 따뜻한 후렴. 어두운데 고요함. 친밀함과 제도가 겹치는 어조.
3 시작과 끝	나오미의 말로 열려 나오미의 말로 닫힘 — 구함의 쉽(1)에서 신뢰의 쉽(18)으로. 구함의 주체가 시어머니에서 며느리로 이동.
4 등장인물·사상	청혼의 주체가 여성(룻). 헤세드의 연쇄(나오미·룻·보아스). 마음이 정해졌으나 권리의 순서를 지키는 신중함.
5 장면 컷	집 안의 계획(1~5)/밤 마당의 청원(6~9)/응답과 맹세(10~13)/귀가와 확신(14~18) 4컷. 절정 다음의 유보(12절).
6 의문·발견·정보	kanaf의 회수(2:12→3:9). eshet chayil(잠 31:10)이 이방 여인에게. 빈손(1:21)에서 채움(3:17)으로. shifchah→amah 호칭 상승.
7 동영상	등잔 곁의 계획 → 단장과 어둠의 마당 → 발치의 청원 → 축복의 응답 → 여섯 번 되는 보리 → 기다림 속에 앉은 두 여인.
8 초벌 제목·부제	"당신의 옷자락을 펴 덮으소서 — 빌어 준 날개를 그에게 청하다"
9 기도·내면	빌어 준 축복이 청원이 되어 돌아오는 것 — 빌어 준 말과 펴는 손 사이의 거리를 들고 머문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빌어 준 날개, 되돌려 청하는 옷자락:** 2:12에서 보아스는 룻을 축복했다 — "여호와와 날개(kanaf) 아래로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상 주시기를." 그런데 3:9에서 룻은 그 단어를 그대로 받아 청한다 — "당신의 옷자락(kanaf)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같은 단어 kanaf가 한 장 건너 다시 나오는데 주체가 뒤바뀐다. 하늘의 날개를 빌어 준 사람이, 이제 그 날개를 펴 줄 사람으로 지목된다. 룻은 보아스의 말을 자기 청의 근거로 삼는다 — 당신이 빈 그 보호를, 당신이 직접 펴 달라고. 빌어 준 축복이 청구가 되어 돌아오는 이 회수가 이 장의 첫 결이다.

2. **결 2 — 청혼의 주체가 여성, 그러나 헤세드의 언어로:** 어둠 속에서 먼저 청하는 사람은 룻이다. 그런데 그 청은 자기 욕망의 언어가 아니다. '옷자락을 펴 덮으소서'는 빌어 준 보호의 어휘이고, '기업을 무를 자'는 율법의 제도다. 보아스는 그 청을 호감으로 읽지 않고 헤세드로 읽는다 — "네 베품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10절). 처음의 인애는 죽은 남편의 집과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은 것이고, 나중의 인애는 젊은 자를 따르지 않고 가문의 무를 자를 따른 것이다. 한 여인의 능동적인 청이, 사랑하는 두 사람의 일을 넘어 죽은 자의 가문과 나오미를 살리는 신실함의 사슬에 놓인다. 본문은 룻의 능동을 칭찬도 경계도 하지 않고 단정한 청으로만 기록한다.

3. **결 3 — eshet chayil, 이방 여인에게 얹힌 단어:** 보아스는 룻을 '현숙한 여자(eshet chayil)'라 부른다(11절). 잠언 31장 10절의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의 바로 그 표현이다. 그것이 모압에서 온 이방 여인에게, 성읍 백성의 평판으로 얹힌다. 출신이 아니라 행동이 그 호칭을 불러온다. 그리고 2장 1절에서 보아스를 소개할 때 쓴 단어가 gibbor chayil(유력한 자)이었다 — 같은 chayil이 남자에게 한 번, 여자에게 한 번 붙어, 두 사람을 같은 '역량'의 단어로 짝짓는다. 권의 끝에서 이 두 사람이 다윗의 계보를 잇는 한 가정이 된다는 것을 알고 읽으면, 11절의 호칭은 그 계보로 향하는 작은 인장이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 룻 2:12 — "여호와와 날개 아래로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 kanaf 어휘의 원위치, 3:9에서 룻이 회수.
- 룻 1:9 —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 나오미가 빌던 manoach의 결, 3:1의 전사.
- 룻 2:20 — "우리의 기업을 무를 자 중 하나니라" — goel 어휘의 도입, 3:9-12로 이어짐.
- 잠 31:10-31 —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 eshet chayil, 3:11이 이방 여인에게 얹는 단어.
- 겔 16:8 — "내 옷으로 너를 덮어" — kanaf를 펴 덮는 언약의 결.
- 신 25:5-10; 레 25:25 — 수혼·무름 규례 — 고엘 제도의 율법 배경, 3:12-13의 전사.
- 룻 1:21 — "여호와께서 나를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 reqam, 3:17의 채움과 대조.
- 삼하 12:20 — "다윗이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 단장의 결, 3:3의 배경.
- 룻 4:1-12 — 성문의 고엘 절차 — 3:12-13의 청구가 향하는 다음 장.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3:1의 청에서 시작한다 — 누군가 나를 위해 '안식할 곳을 구하겠다'고 말해 준 적이 있는지 듣는다.
- 멈춤 1: 3:9에서 멈춘다 — 빌어 준 날개를 그 사람에게 청하는 동작. 빌어 준 말과 펴 달라는 청 사이의 거리를 준다.
- 멈춤 2: 3:11에서 멈춘다 — 출신이 아니라 행동으로 '현숙한 여자'라 불리는 결. 나를 부르는 평판이 무엇 위에 서 있는지 본다.
- 끝: 3:18에서 멈춘다 — 앉아 있으라. 이미 응답받았으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간격을, 봉합하지 않고 기다리는 자세를 본다.

F · 자족성 점검

- [x] 집 안의 계획(1~5)·밤 마당의 청원(6~9)·응답과 맹세(10~13)·귀가와 확신(14~18)의 네 컷 완결
- [x] kanaf의 회수(2:12→3:9)와 청혼 주체의 결
- [x] eshet chayil의 적용과 chayil 어휘의 짝(2:1 보아스)
- [x] 보아스의 신중함(11절 수락 / 12절 유보 / 13절 맹세)과 절정 다음의 한 박자
- [x] 빈손(1:21)에서 채움(3:17)으로의 호와 '삼'의 액자(1·18절)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룻기의 spine은 '홍년과 죽음의 빈손에서, 사람들의 헤세드를 엮어 구속의 계보(다윗)로 이어가신다'이며, destination은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4:17-22)다(book-telos). 권의 흐름은 홍년·죽음·룻의 결단(1장), 보아스의 밭(2장), 타작마당의 청원(3장), 성문 고엘·결혼·오벳→다윗 족보(4장)로 움직이는 데, 3장은 헤세드가 청혼이 되는 국면 — 2장에서 베풀어진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제 언약을 청구하고, 그 청구가 4장의 성문 절차로 손을 내미는 다리의 한가운데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룻기의 heart — 빈손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여호와께서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도다'(2:20)로 감싸시는 자상함 — 가 3장에서는 한 가정의 실 처소를 구하는 사람의 인애로 구체화된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안식할 곳을 구하고(1절), 며느리가 죽은 자의 가문을 위해 젊은 자를 따르지 않고(10절), 무를 자가 권리의 순서를 지키며 무름을 맹세하는(13절) — 세 사람의 헤세드가 한 밤에 포개진다. 하늘이 직접 일하지 않고 사람의 입을 통해 여호와와 이름이 두 번 불릴 뿐인데(10·13절), 그 평범한 인애의 사슬이 4장의 결혼과 오벳의 출생

을 지나 다윗과 메시아 계보로 이어지는 긴 호의 한 매듭이다. 이방에서 온 한 여인이 '현숙한 여자'로 불리는 (11절) 이 밤은, 그 줄기에 이방인을 접붙이시는 손길의 작은 인장이다.

H·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은혜(2장의 밭)에서 청구(3:9의 옷자락)로 / 빌던 쉼(1:9 menuchah)에서 구해지는 쉼(3:1 manoach)으로 / 빈손 (1:21 reqam)에서 채움(3:17 reqam)으로 — 평범한 이들의 인애가 서로를 받쳐 성문의 아침으로 향하는 운동.

한 화살표로 좁히면, 3장은 받은 은혜가 청구가 되고 그 청구가 절차로 넘어가는 경첩이다. 시어머니의 계획 (1~5절)이 밤 마당의 청원(6~9절)으로, 청원이 축복의 응답(10~11절)으로, 응답이 권리의 유보(12절)와 무름의 맹세(13절)로 이어지며 일이 사적인 손에서 공적인 절차로 옮겨 간다. 그러나 3장은 스스로 끝맺지 못한다 — 12절의 '더 가까운 자'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18절의 "앉아 있으라"가 그 미완을 견디는 자세로 장을 닫는다. 3장의 벡터는 권 전체를 '홍년의 빈손에서 밭의 은혜로, 은혜에서 청원으로, 청원에서 성문의 고엘 절차로, 절차에서 오벳의 출생과 다윗의 족보로' 끌고 가는 헤세드의 다리 중 한 구간이며, 그 다리 전체가 평범한 이들의 인애를 통해 구속의 계보를 잇는 쪽으로 움직인다. 빈손이 채워지기 시작했고, 두 여인이 성문의 아침을 기다린다.

I·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한 여인의 청혼 장면이다 — 밤, 마당, 발치, 청, 응답.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다른 것이 움직인다. 첫째, 헤세드의 연쇄다. 나오미가 며느리의 쉼 곳을 구하고, 룿이 죽은 자의 가문을 위해 젊은 자를 따르지 않고, 보아스가 권리의 순서를 지키며 무름을 약속한다. 세 사람의 인애가 서로를 받친다 — 누구의 인애도 혼자 작동하지 않고, 앞사람의 인애가 뒷사람의 인애를 부른다. 둘째, 어휘의 회수다. 보아스가 2:12에서 빌어 준 '날개'를 룿이 3:9에서 그에게 되돌려 청한다. 하늘의 보호가 사람의 손을 통해 구체화되는 — 빌어 준 말이 펴는 손이 되어야 하는 국면이 여기 있다. 본문은 그 보호가 추상이 아니라 누군가가 실제로 옷자락을 펴는 일임을 보여 준다. 셋째, 절제다. 본문은 밤의 장면을 다루면서 거의 모든 동작을 단정한 동사로만 적고, 14절에서는 두 사람의 평판을 어둠으로 가려 준다. 친밀한 본문을 선정으로 끌고 가지 않고 존중으로 비워 두는 이 절제 자체가, 약자를 향한 배려를 문체로 보여 준다. 빈손으로 보내지 않는 보리 여섯 번(17절)이 그 배려의 손이다. 본문은 거기까지만 보여 주고 멈춘다 — 결말은 성문의 아침에 있다.

J·실존적 부름 — 불씨

나는 누군가에게 빌어 준 보호를, 그 사람에게 직접 퍼 줄 손이 되어 본 적이 있는가 — 그리고 누가 빌어 준 그 날개를, 나는 그 사람에게 청해 본 적이 있는가. 응답받았으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간격을, 나는 불합하지 않고 앉아 기다릴 수 있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지 않는다. 다만 며느리의 쉼 곳을 구하는 시어머니를 보여 주고, 빌어 준 날개를 그 사람에게 청하는 한 여인을 보여 주고, 그 청을 헤세드로 읽어 '현숙한 여자'라 부르며 권리의 순서를 지키는 한 사람을 보여 준다.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려는 보리 여섯 번, 평판을 가려 주는 어둠, 그리고 기다림 속에 앉은 두 여인 — 이 절제와 인애가 오히려 독자가 들어설 문이 된다. 누군가를 위해 안식할 곳을 구해 보는 일, 빌어 준 보호를 추상으로 남기지 않고 옷자락을 펴는 손이 되는 일, 그리고 응답과 성취 사이의 간격을 조르지 않고 앉아 견디는 일. 평범한 이들의 인애가 서로를 받쳐 구속의 계보로 이어지는 권의 한가운데에서, 그 사슬에 자기 인애 한 매듭을 더해 보는 것 — 그 작은 헤세드가 독자를 부르는 불씨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청은 받아들여졌으나 더 가까운 자가 남아 있다 —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 앉고(4:1), 신 한 짝이 벗겨지고, 무릎의 권리가 넘어와 룯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 오벳을 낳는다.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kanaf* — 옷자락이자 날개.

미해결 질문

룯기 3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귀 단계로 이월. 친밀한 본문은 절제로 묻는다.

Q1. 3:9 — 룯은 왜 2:12의 '날개(*kanaf*)'를 보아스 자신에게 되돌려 청하는가?

- 2:12에서 보아스는 룯에게 "여호와와 날개(*kanaf*) 아래로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라고 빌었다. 3:9에서 룯은 "당신의 옷자락(*kanaf*)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고 청한다. 빌어 준 하늘의 보호를 빌어 준 사람 자신에게 청구하는 어휘의 회수 — 그 의도를 단정하지 않고, 같은 단어가 주체를 바꾸어 다시 놓였다는 형태로 보존.

Q2. 청혼의 주체가 여성(룯)이라는 결 — 본문은 이 동작을 어떻게 두는가?

- 어둠 속에서 먼저 말을 꺼내고 먼저 청하는 사람이 룯이다. 그런데 그 청은 욕망의 언어가 아니라 빌어 준 축복(2:12)과 율법의 제도(고엘) 위에 선다. 본문은 이 능동을 칭찬도 경계도 하지 않고, 단정한 청의 문장으로만 기록한다. 그 무평가를 비워 둔 채 보존.

Q3. *eshet chayil*(3:11) — 잠 31:10의 단어가 왜 이방 여인에게 얹히는가?

- '현숙한 여자(역량 있는 여인)'는 잠언 31장의 표현이다. 그것이 모압에서 온 룯에게 성읍 백성의 평판으로 얹힌다. 출신이 아니라 행동(헤세드)으로 그 단어가 적용되는 결 — 신학적 일반화로 닫지 않고, 본문이 그 호칭을 이방 여인에게 두었다는 사실로 보존.

Q4. 보아스의 신중함(3:12-13) — 마음이 정해졌는데 왜 권리의 순서를 먼저 두는가?

- "네가 말한 대로 다 행하리라"(11절) 직후 "나보다 더 가까운 자가 있으니"(12절)가 온다. 사랑의 절정이 곧 장 결혼으로 가지 않고 친족의 권리 다음으로 한 박자 늦춰진다. 그 늦춤이 소극인지 신실인지 본문은 평가하지 않고, 13절의 맹세로 책임만 밝힌다. 보존.

Q5. 3:10의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 룯의 동기를 본문은 왜 들추지 않는가?

- 보아스는 룯의 택함을 '처음보다 나중에 더한 인애'로 읽는다. 그러나 룯 자신의 마음이 호감인지 신실함인지에 대한 서술은 비어 있다. 청을 드린 사람의 속마음을 본문이 굳이 열어 보지 않는 절제 — 그 침묵을 채우지 않고 보존.

Q6. 3:18의 '앉아 있으라' — 응답받았으나 아직 성취되지 않은 간격을 어떻게 견디는가?

- 청은 수락되었으나(11절) 더 가까운 고엘의 권리가 남아(12절)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옴이는 그 간격을 봉합하지 않고 "앉아 있으라"로 권한다.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기다림 — 그 자세가 4장 성문의 아침으로 향하는 동안, 답하지 않고 이월.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룻기 4장

RUT-004 · 역사서 · 히브리어

밤의 타작마당 청원이 낮의 성문 법정에서 공증되어 — 더 가까운 고엘이 신을 벗어 물러나고 (4:8), 장로들이 라헬·레아와 다말을 호명해 축복하며(4:11-12),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시므로"(4:13) 오벳이 태어나 마라의 빈손이 "생명의 회복자"(4:15)로 채워지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4:22)는 족보로 한 권이 닫히는 — 한 가정의 헤세드가 왕의 계보로 거두어지는 룻기의 도착점.

관찰된 사실

룻기 4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 성문(shaar, 1절) — 고대 성읍의 공공 법정·시장·공증소. 밤의 타작마당(3장)에서 낮의 공개 좌석으로 올라온 무대.
- 무대의 채움: 보아스가 올라가 앉고(1절), 장로 열 명을 청해 좌석을 채움(2절). 한 청원이 열두 좌석 앞에서 다뤄지는 공적 무대.
- 소품: 벗어 건네는 신(naal, 7-8절), 엘리멜렉이 남긴 밭(3절), 장로의 좌석(2절), 나오미 품에 안기는 아기(16절). 신발에서 아기로 옮겨 가는 소품의 양 끝.
- 소품의 짝: 권리를 거두는 손(6절)과 아기를 품는 품(16절), 벗겨져 건네지는 신(8절)과 안겨서 품기는 생명(16절).
- 소재의 이동: 앞쪽은 법정 어휘(무르다·사다·증인·신을 벗다), 뒤쪽은 가정 어휘(임신·출생·품·양육·이름), 맨 끝은 족보 어휘(낳고·낳았더라).
- 형식 소재: 1절의 익명 호칭(peloni almoni, '아무개'), 7절의 끼어든 관습 해설 각주(신 벗는 전례), 18~22절의 열 이름 족보 양식으로 닫힘.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1~6절은 협상의 긴장 — 3장의 미해결(더 가까운 고엘, 3:12)이 1~6절의 협상으로 이어지다 6절 "내가 무르지 못하겠노라"에서 매듭이 풀림.
- 6절 이후 공기가 환해짐 — 축복·출생·노래. 마라(1:20)의 쓴 것이 단 것으로 바뀌는 공기.
- 14절 여인들의 찬송이 1:21의 "여호와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를 받아 줌 — 1:19에서 수군대던 마을이 4:17에서 아기 이름을 지어 줌.
- 어조의 사다리: 거래(1~8) → 선언·축복(9~12) → 출생·호명(13~17) → 족보(18~22). 사사기 1장의 하강 사다리와 정반대 방향의 상승.
- 감각: 손해 볼까 거두는 손(6절)과 아기를 품는 품(16절). "일곱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15절) — 숫자의 무게를 사랑이 뒤집는 문장.

- 권의 끝으로 갈수록 '여호와'의 빈도가 오름(11·12·13·14절) — 1~3장에서 조용하던 이름이 마지막 장에서 입에서 입으로 불림. 배경.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무를 자가 지나가는지라."
- 22절: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 한 사람이 성문에 앉는 장면으로 열려 한 이름(다윗)으로 닫힘 — 시선이 한 마을의 성문에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넓어짐.
- 어미의 이동: 우연한 만남의 종결("지나가는지라")에서 계보의 종결("낳았더라")로 — 작은 우연이 긴 계보를 낳음.
- 권의 양 끝: 1:1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홍년이 드니라" ↔ 4:22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 홍년으로 열려 왕의 이름으로 닫힘. 1:21의 빈손 ↔ 4:15-16의 안긴 아기.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보아스(절차를 주관), 더 가까운 고엘(이름 지워진 '아무개', 1·4·6절), 장로 열 명(증인·축복, 2·11절), 룯(맞아들여지는 모압 여인, 13절), 나오미(아기를 품는 양육자, 16절), 이웃 여인들(찬송·이름 지음, 14·17절), 오벳(태어난 아이, 17절), 호명된 라헬·레아·다말·베레스(11·12절), 여호와(임신하게 하시는 분, 13절).
- 중심 사상 — 이름: "죽은 자의 이름으로 기업을 잇게"(5·10절), "유명하게 되기를"(11절), "칭송받게 되기를"(14절). 이름을 끊기지 않게 하는 것이 이 장의 동력. 역설 — 말론의 이름으로 시작했으나 빛난 이름은 오벳·보아스의 계보.
- 두 관습의 결합: 고엘 제도(레 25:25, 땅을 무름)와 계대결혼(신 25:5-10, 이름을 이음)이 한 거래로 묶임(5절) — 더 가까운 고엘이 섰이 어긋난 이유(6절 "내 기업에 손해").
- 대비(평가 없음): 자기 기업을 지키려다 이름을 잃은 '아무개'(6절)와 손해를 떠안아 계보에 이름을 남긴 보아스 — 본문은 정죄 없이 이름의 있고 없음으로만 나란히 둬.
- 신을 벗어 건넌(7-8절): 인장·문서 대신 신 한 짝이 거래의 증서가 됨. 신 25:9의 신 벗김(수치의 표)과 다른 결의 증서 관습.
- 회복(meshiv nefesh, 14-16절): 마른/빈 것이 다시 채워짐 — 며느리의 아들이 시어머니의 품으로(16절), "나 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17절).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6절): 성문의 법정 — 보아스가 올라가 앉음(1), '아무개'를 부름(1), 장로 열 명(2), 밭을 무르라는 제안(3-4), "내가 무르리라"(4), 룯·죽은 자의 이름이라는 조건(5), 물러남 "내가 무르지 못하겠노라"(6).
- 컷 2 (7~10절): 신 벗음과 증인 — 신 벗는 전례의 각주(7), 신을 벗어 건넌(8), "오늘 너희가 증인이 되었느니라"(9), 룯을 맞아 죽은 자의 이름을 잇겠다는 공표(10).
- 컷 3 (11~13절): 축복과 출생 — 장로·백성의 증언과 축복(라헬·레아처럼, 다말·베레스의 집처럼, 11-12),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시므로" 아들을 낳음(13).
- 컷 4 (14~22절): 회복과 족보 — 여인들의 찬송과 '생명의 회복자'(14-15), 나오미가 아기를 품음(16), "나 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와 오벳(17), 베레스에서 다윗까지의 족보(18-22).

- 컷 4 내부의 상승 사다리: 빈손이 채워짐(14) → 회복·봉양의 약속(15) → 며느리의 아들이 시어머니의 품으로(16) → 마을이 회복을 공인·이름 지음(17) → 한 왕의 계보(22). 사사기 1장의 하강 컷과 정반대의 상승.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 *shaar*(שַׁעַר) — 성문, 공공 법정(1절). / *peloni almoni*(פְּלוֹנִי אֱמוֹנִי) — '아무개', 이름을 가리는 호칭(1절).
- *goel*(גּוֹאֵל) — 무를 자(1·3·6·8·14절). 동사 *gaal*(גָּאֵל) — 값을 치러 되찾다·회복하다(4·6절).
- *qanah*(קָנָה) — 사다·취득하다(4·5·9·10절). 거래의 동사. / 5절 케레-케티브 — *qaniti*('내가 샀다') / *qanita*('네가 사야') 사본 갈림.
- *qum shem* 계열 — '이름을 세우다·일으키다'(5·10절), 죽은 자의 이름을 잇는 표현.
- *naal*(נָעַל) — 신(7·8절). 증거의 표징. 신 25:9의 '신 벗김'(수치)과 다른 결의 증서 관습.
- *edim*(עֲדִים) — 증인들(9·10·11절, 세 번 반복).
- 라헬·레아(11, לְרַחֵל לְלֵאָה 절) — 이스라엘 집을 세운 두 어머니. / 다말·베레스(12, דָּמָא בֶּרֶס 절) — 창 38장의 비정상 계보, 보아스의 시조.
- 13절 *herayon* 계열 — 임신을 '여호와께서 주셨다'로 표현. 사람의 일이 아니라 주어지는 선물로 서술.
- *meshiv nefesh*(מְשִׁיב נֶפֶשׁ) — 생명을 돌이키는 자, 회복자(14절). 어근 *shuv*는 1:21·22의 '돌아오다'와 같음.
- *Oved*(עֹבֵד) — 오벳, '섬기는 자'(17절). / *David*(דָּוִד) — 다윗, 권을 닫는 이름(22절).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 성문 법정(1~6) + 신 벗음·증인(7~10) + 축복·출생(11~13) + 회복·족보(14~22) — 거래에서 계보로 올라가는 종결 구조.
- 1:20-21의 마라·빈손과 4:14-16의 회복자·안긴 아기가 수미상관 — "비어 돌아왔다(*shuv*, 1:21)"가 "생명의 회복자(*meshiv nefesh*, 4:15)"로 닫힘.
- 고엘 호명의 연쇄: 2:20(나오미가 보아스를 고엘로 호명) → 3:9(룻의 청원) → 4장(공증으로 완결). 권을 관통하는 한 어휘의 도착.
- 익명의 처리: 이름 가득한 권에서 더 가까운 고엘만 '아무개'(1절) — 이름을 지키려다 이름을 잃은 자와 손해를 떠안아 계보에 든 자의 대비.
- 축복의 호명(11-12절)이 보아스의 시조(베레스, 18절)와 이방·비정상 계보(다말·룻)를 미리 불러냄 — 구속사 계보의 결을 축복으로 예고.
- 며느리의 아들이 시어머니의 아들로(4:16-17) ↔ 룻의 결단(1:16-17) — 따라가겠다면 며느리가 빈 품을 채우는 것으로 돌아옴.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 성문(*shaar*) — 고대 근동 성읍의 공공 법정·시장·공증소. 장로들이 앉아 판결·증언하던 행정 공간. 4:1-2·9-11의 배경.
- 고엘 제도 — 가까운 친족이 가난해진 친척의 땅을 무름(레 25:25). 친족 보호 관습. 4:3-6의 배경.
- 계대결혼(*yibbum*) — 자식 없이 죽은 자의 이름을 잇게 하는 관습(신 25:5-10). 4:5·10의 배경.
- 신 벗어 건넌 — 거래·무름·교환을 확정하는 증거의 표징. 인장·문서가 흔치 않던 시대의 권리 이전 가시화. 4:7-8의 배경.

- 다말과 유다(창 38장) — 비정상 경로로 가문의 이름을 이은 선례. 베레스 출생이 장로 축복에 호명됨. 4:12의 배경.
- LXX·본문비평: 5절 케레-케티브(qaniti/qanita) — 더 가까운 고엘의 부담을 가르는 지점. 본문비평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룻 4:4 ↔ 레 25:25 (가까운 친족이 형제의 땅을 무름 — 고엘 제도의 율법 배경)
- 룻 4:5-7 ↔ 신 25:5-10 (계대결혼과 신 벗김 — 두 관습의 율법 배경)
- 룻 4:12 ↔ 창 38장 (다말·유다·베레스 — 축복이 호명하는 선례, 보아스의 시조)
- 룻 4:11 ↔ 창 29-30장; 35장 (라헬·레아가 이스라엘 집을 세움 — 축복의 호명)
- 룻 4:11 ↔ 창 35:19; 미 5:2 (베들레헴 에브라임 — 지명과 다윗의 고향)
- 룻 4:14-15 ↔ 룻 1:20-21 (마라·빈손 — 회복과의 수미상관)
- 룻 4:15 ↔ 룻 1:16-17 (룻의 결단 — '일곱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의 도착)
- 룻 4장 ↔ 룻 2:20; 3:9 (고엘 호명·청원 — 공증으로 완결)
- 룻 4:22 ↔ 삼상 16:1-13 (이새의 아들 다윗 — 족보가 가리키는 곳)
- 룻 4:18-22 ↔ 마 1:3-6 (다말·라합·룻이 메시아 계보에 들 — 신약 메아리, 교차 참조)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연기

성문, 아침. 한 남자가 돌 좌석에 올라가 앉는다. 자막 —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그 친족이 지나간다. 보아스가 부른다 —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장로 열 명이 청함을 받아 빈 좌석을 채운다. 보아스가 말한다 — 엘리멜렉의 밭을 무르려거든 무르라. 그가 답한다 — 내가 무르리라. 보아스가 한마디를 더한다 —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도 사서 죽은 자의 이름을 잇게 해야 하느니라. 그의 표정이 멈춘다 — 내가 무르지 못하겠노라, 무르면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노라. 그가 밭에서 신을 벗어 보아스에게 건넨다. 화자가 끼어든다 — 옛적 무름을 확정하려고 신을 벗어 이웃에게 주던 전례가 이러하였더라. 보아스가 손을 든다 — 오늘 너희가 증인이 되었느니라. 장로들이 입을 연다 — 여호와께서 라헬과 레아 같게,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화면이 따뜻해진다. 자막 —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시므로 그가 아들을 낳은 지라. 여인들이 둘러서서 노래한다 —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이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가슴에 품는다 —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여인들이 이름을 부른다 — 오벧. 사람의 얼굴이 사라지고 이름들이 자막으로 흐른다 — 베레스, 헤스론, 람, 암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벧, 이새. 마지막 한 이름에서 멈춘다 — 다윗. 암전.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벌 제목: "내가 무르지 못하겠노라 — 신 한 짝에 봉인되어 다윗으로 닫히는 권"
- 초벌 부제: "타작마당의 밤 청원(3장)이 성문의 낮 법정으로 올라와 공증되고(4:1-10), 더 가까운 고엘이 신을 벗어 물러나는 국면에서 보아스가 손해를 떠안아 룻을 맞으며, 장로들이 라헬·레아와 다말을 호명해 축복하고(4:11-12)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시므로'(4:13) 오벧이 태어나 — 마라(1:20)의 빈손이 '생명의 회복자'(4:15)로 채워지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4:22)는 족보로 한 가정의 헤세드가 왕의 계보로 거두어지는 룻기의 종결"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20개 기록)

-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성문 법정 구조 + 고엘·계대 두 관습의 결합 + 신 벗는 전례 각주 + 마라·회복 수미상관 + 다윗 족보 결구)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권 전체 회고 형식)

드리프트 관찰

- 4:13의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시므로'를 불임 치유의 일반 교리나 출산 신학으로 확장하지 않고, 1~3장 내내 숨어 계시던 분이 출생의 순간 한 번 동사의 주어로 나오신다는 발화 사실과 herayon의 어휘 관찰로만 둬.
- 더 가까운 고엘의 물러남(4:6)을 불신앙·이기심의 정죄로 단정하지 않고, 율법적 하자 없는 권리 이양임에도 본문이 이름을 적지 않는다는 형식 사실(익명 peloni almoni)로만 기록. 평가는 비워 둬.
- 4:12의 다말·베레스 호명을 '이방·죄의 계보가 구원에 든다'는 신학 명제로 닫지 않고, 보아스의 시조를 축복이 불러낸다는 본문 내 호명 사실과 창 38장 교차 참조로만 둬.
- 4:15 meshiv nefesh를 메시아 예표론으로 비약하지 않고, 어근 shuv가 1:21의 '비어 돌아옴'과 닿는다는 어휘 관찰로만 보존. 마 1:5의 계보 연결도 교차 참조 노드로만 표시하고 해석하지 않음.
- 4:22 다윗 족보를 왕정 신학의 증명으로 끌고 가지 않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1:1)의 어둠 다음에 한 줄기 빛으로 닫히는 권의 구조 관찰과 사무엘상으로 열린 이월로만 둬.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롯기 4장은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 기업 무를 자가 지나가는지라"(4:1)는 낮의 공개 법정으로 열려, 더 가까운 고엘이 "내가 무르리라"(4:4) 했다가 "룻에게서 죽은 자의 이름으로 기업을 잇게" 한다는 조건에 "내가 무르지 못하겠노라 ...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노라"(4:6)며 신을 벗어 건네 물러나고(4:7-8), 보아스가 증인 앞에 룻을 맞으며 장로들이 라헬·레아와 다말·베레스를 호명해 축복하고(4:11-12),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시므로"(4:13) 오벳이 태어나 — 여인들이 "네 생명의 회복자이며 ... 일곱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4:15)라 찬송하고 나오미가 아기를 품어 양육자가 되며(4:16),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4:22)는 족보로 닫히는, 한 가정의 헤세드가 왕의 계보로 거두어지는 롯기의 도착점이다.

한 문단: 성문, 아침. 한 남자가 좌석에 올라가 앉는다. 마침 그 친족이 지나가고, 보아스가 부른다 — 아무개여, 앉으라. 장로 열 명이 좌석을 채운다. 말을 무르라는 제안에 그가 답한다 — 내가 무르리라. 그러나 보아스가 한마디를 더한다 — 모압 여인 룻에게서도 사서 죽은 자의 이름을 잇게 해야 하느니라. 썸이 어긋난 그가 손을 거둔다 — 내가 무르지 못하겠노라, 손해가 있을까 하노라. 그리고 신을 벗어 건넨다. 화자가 잠깐 끼어들어 옛 전례를 설명한다. 보아스가 손을 든다 — 오늘 너희가 증인이 되었느니라. 장로들이 축복한다 — 라헬

과 레아 함께, 베레스의 집과 함께. 화면이 따뜻해진다.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시므로 아들이 태어난다. 여인들이 둘러서서 노래한다 —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이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마라라 불러 달라던(1:20) 그 입을 마을이 찬송으로 받아 준다. 나오미가 아기를 가슴에 품는다 —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이름은 오벧. 그리고 사람의 얼굴이 사라지고 이름의 행렬만 남는다 — 베레스에서 다윗까지. 흥년으로 열린 권(1:1)이 왕의 이름으로 닫힌다.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밤의 타작마당에서 낮의 성문(법정)으로 올라온 무대, 벗겨져 건네지는 신과 품에 안기는 아기라는 소품 — 법정에서 요람으로 옮겨 가는 소재.
2 첫 느낌·분위기	6절에서 풀리는 매듭. 마라를 찬송으로 받아 주는 마을. 거래→축복→출생→족보의 상승 사다리. 일곱보다 귀하다는 뒤집힌 무게.
3 시작과 끝	성문에 앉은 한 사람으로 열려 한 이름(다윗)으로 닫힘. 권의 양 끝 — 흥년(1:1)에서 왕(4:22)으로, 빈손(1:21)에서 안긴 아기로.
4 등장인물·사상	이름 지워진 '아무개'와 이름을 얻은 보아스. 고엘·계대 두 관습의 결합. 끊긴 이름을 잇는 것이 장의 동력.
5 장면 컷	성문 법정(1~6)/신 벗음·증인(7~10)/축복·출생(11~13)/회복·족보(14~22) 4컷. 컷 4 내부는 빈손→회복→품음→공인→계보의 상승 사다리.
6 의문·발견·정보	두 겹로 쓰이는 신발. 축복에 호명되는 다말·라헬·레아. 며느리의 아들이 시어머니의 아들로. 5절 케레·케티브.
7 동영상	성문의 좌석 → 신 벗음과 증인 → 장로의 축복 → 출생과 품는 팔 → 마을의 노래 → 이름의 행렬 → 다윗.
8 초별 제목·부제	"내가 무르지 못하겠노라 — 신 한 짝에 봉인되어 다윗으로 닫히는 권"
9 기도·내면	비워졌다 여긴 품이 어떻게 채워질지는 내 썴을 넘어선다 — 그 사실을 들고 머문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밤의 청원에서 낮의 공중으로:** 3장의 청원은 한밤의 타작마당에서 단둘이 속삭이는 일이었고, "더 가까운 고엘이 있다"(3:12)는 미해결로 닫혔다. 4장은 그 일을 환한 성문으로, 장로 열 명의 좌석 앞으로, 온 마을의 증인 앞으로 끌어올린다. "오늘 너희가 증인이 되었느니라"(4:9)가 세 번 반복되는 증인(edim) 어휘 위에서, 숨겨진 헤세드가 공인된 회복이 된다. 사사로운 친절이 공동체의 기록이 되는 — 밤에서 낮으로, 속삭임에서 선언으로의 이동이 이 장의 첫 결이다.
- 결 2 — 손해를 떠안은 자의 이름, 지워진 자의 이름:** 더 가까운 고엘은 율법적 하자 없이 무를 권리를 넘겼다(4:6). 정죄받을 일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름 가득한 권에서 그만 '아무개(peloni almoni)'로 남는다. 자기 기업을 지키려다 이름을 잃은 사람과, 손해를 무릅쓰고 계보에 이름을 남긴 보아스가 같은 성문 앞에 나란히 선다. 본문은 어느 쪽도 평가하지 않고, 이름의 있고 없음으로만 그 차이를 보여 준다. 썴이 맞는 선택과 썴을 넘는 헤세드 사이에서, 본문은 독자를 판관이 아니라 관찰자로 세운다.
- 결 3 — 마라에서 회복자로, 끊긴 이름이 다시 이어짐:** 1:20에서 나오미는 "나를 마라(쓴 것)라 부르라 ... 여호와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고 했다. 4:14-15에서 여인들은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meshiv nefesh)"라 노래한다. 어근 shuv가 1:21의 '비어 돌아옴'과 4:15의 '생명을 돌이킴'을 한 실로 켜다. 죽음으로 끊긴 엘리멜렉의 이름, 비워진 나오미의 품, 자식 없던 롯의 십 년 — 끊기고 비워진 것들이 한 아기 안

에서 다시 이어진다. 그리고 그 이음은 기적의 굉음이 아니라 이삭을 줍고 청원하고 손해를 떠안는 작은 헤세드를 통해 온다. 권은 그 회복을 베레스에서 다윗까지의 족보로 봉인한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 레 25:25 — 가까운 친족이 형제의 땅을 무름 — 4:4 고엘 제도의 율법 배경.
- 신 25:5-10 — 계대결혼과 신 벗김 — 4:5·7 두 관습의 율법 배경(신 벗김은 수치, 4:7은 증서).
- 창 38장 — 다말·유다·베레스 — 4:12 축복이 호명하는 선례, 보아스의 시조.
- 창 29-30장; 35장 — 라헬·레아가 이스라엘 집을 세움 — 4:11 축복의 호명.
- 룻 1:20-21 — 마라·빈손 — 4:14-16 회복과의 수미상관.
- 룻 2:20; 3:9 — 고엘 호명·청원 — 4장에서 공증으로 완결.
- 삼상 16:1-13 — 이새의 아들 다윗 — 4:22 족보가 가리키는 다음 책.
- 마 1:3-6 — 다말·라합·룻이 메시아 계보에 들 — 4:18-22 족보의 신약 메아리, 교차 참조로만.
- 샅 21:25 — "왕이 없으므로" — 룻기 1:1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의 어둠 다음에 오는 빛.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4:1의 성문에서 시작한다 — 숨겨 두고 싶은 일을 환한 처소로 올려 공증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듣는다.
- 멈춤 1: 4:6에서 멈춘다 — 썸이 맞는 물러남과 썸을 넘는 떠안음. 이름을 잃은 자와 이름을 얻은 자를 같이 본다.
- 멈춤 2: 4:15에서 멈춘다 — '생명의 회복자'와 '일곱보다 귀한 며느리'. 숫자의 무게를 뒤집는 사랑.
- 끝: 4:22에서 멈춘다 — 흥년으로 열린 권이 다윗으로 닫힌다. 내 빈손과 그 빈손이 채워지는 결을 한 계보 안에 두고 본다.

F · 자족성 점검

- [x] 성문 법정(1~6)·신 벗음과 증인(7~10)·축복과 출생(11~13)·회복과 족보(14~22)의 네 컷 완결
- [x] 고엘·계대 두 관습의 결합과 더 가까운 고엘의 물러남(4:6)
- [x] 신 벗어 건넌의 전례 각주(4:7)와 신 25:9와의 결 차이
- [x] 마라(1:20)·빈손(1:21)과 회복자(4:15)·안긴 아기(4:16)의 수미상관
- [x] 베레스에서 다윗까지의 족보(4:18-22)와 1:1 흥년과의 권 전체 액자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룻기의 spine은 '흥년과 죽음의 빈손에서, 사람들의 헤세드를 엮어 구속의 계보(다윗)로 이어가신다'이며, destination은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4:17-22)다. 권의 흐름은 흥년·죽음·룻의 결단(1장), 보아스의 밭(2장), 타작마당의 청원(3장), 성문 고엘·결혼·오벳→다윗 족보(4장)로 움직이는데, 4장은 마지막 국면 — 그 도착점이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룻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1:1) 곧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샅 21:25)는 그 어둠 한가운데에 놓여 있다. 사사기 전권이 미완과 하강 나선으로 참왕의 필요를 드러냈다면, 룻기 4장은 그 밤 다음에 오는 작은 빛으로, 한 베들레헴 가정의 헤세드가 바로 그 참왕(다윗)의 계보를 낳는 장면을 보여 준다. 권의 heart — 비어 돌아온 자에게 생명을 돌이켜 주시는, 숨은 듯 미치는 긍휼 — 의 도착이 여기서는 굉음 없는 출생과 한 줄의 족보로 나타난다. 죽음으로

끊긴 이름을 사람들의 작은 친절을 실로 삼아 다시 이으시고, 그 이름을 한 왕의 계보 끝(다윗)에 거두시는 이 마지막 장이, 홍년의 첫 절(1:1)부터 이어진 긴 호의 도착 좌표다. 빈손이 채워지는 곳에서 한 권이 닫힌다.

H·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밤의 청원(3장)에서 낮의 공중(4:1-10)으로 / 셈이 맞는 물러남(4:6)에서 손해를 떠안은 헤세드로 / 마라의 빈손(1:20-21)에서 생명의 회복자(4:15)로 / 홍년의 첫 절(1:1)에서 다윗의 족보(4:22)로 — 사람들의 작은 친절을 실로 삼아 끊긴 이름을 다시 이으시는 운동.

한 화살표로 좁히면, 4장은 권 전체가 향해 온 '빈손에서 채워짐으로'의 도착이다. 성문의 협상(1~6절)이 신 벗음과 증인의 공중(7~10절)으로, 공중이 장로들의 축복(11~12절)으로, 축복이 출생과 회복(13~17절)으로, 회복이 다윗의 족보(18~22절)로 한 단씩 올라간다. 사사기 1장이 일곱 지파로 번지는 하강 나선의 첫 측량이었다면, 롯기 4장은 한 아기에서 한 왕조로 번지는 상승의 봉인이다. 그리고 이 책은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끼어 있다 — 사사기의 밤이 끝나고, 사무엘서에서 한 아이를 구하는 기도와 함께 왕을 향한 길이 열리기 전, 그 사이에 한 가정의 빛이 놓인다. 4장 22절의 마지막 단어 '다윗'이 다음 책의 문을 가리키며, 롯기의 벡터는 전권을 '홍년의 빈손에서 헤세드로, 헤세드에서 고엘의 공중으로, 공중에서 다윗의 계보로' 끌어올리는 한 줄기 상승이다.

I·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한 과부와 한 이방 며느리의 사사로운 가정사다 — 땅을 무르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일.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다른 것이 움직인다. 첫째, 끊긴 것을 다시 잇는 손길이다. 죽음으로 끊긴 엘리멜렉의 이름, 비워진 나오미의 품, 자식 없던 롯의 십 년 — 본문은 이 끊기고 비워진 것들을 4장에서 하나씩 다시 잇는다. 그리고 그 이름은 거창한 기적이 아니라 사람들의 헤세드를 실로 삼아 온다. 둘째, 숨어 일하시는 분이다. 1~3장 내내 하나님은 거의 무대 뒤에 계셨고, 4:13에 딱 한 번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시므로"로 동사의 주어가 되신다. 함께하심을 큰 소리로 선포하는 문장은 없다. 그러나 권의 끝으로 갈수록 '여호와'의 이름이 사람들의 입에서 잦아진다(4:11·12·13·14) — 보이지 않던 손길이 회복의 순간에 마을의 찬송으로 드러난다. 셋째, 경계 밖의 사람이 중심으로 들어온다. 모압 여인 롯이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4:17·21-22), 비정상의 계보(다말·창 38장)가 축복으로 호명되며 엮인다(4:12). 본문은 이것을 문제로 다루지 않고 축복으로 다룬다. 본문은 거기까지만 보여 주고 멈춘다.

J·실존적 부름 — 불씨

나는 어떤 손해 앞에서 셈을 멈추는가 — 이름을 지키려다 이름을 잃는 국면에서 있는가, 손해를 떠안아 한 사람의 이름을 잇는 국면에서 있는가. 그리고 내가 비었다고 셈한 품은 어디인가 — 거기 안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에게 헤세드를 명령하지 않는다. 다만 손해를 무릅쓰고 한 여인을 맞아 죽은 자의 이름을 잇는 한 사람을 보여 주고, 마라라 불러 달라던 입을 찬송으로 받아 주는 마을을 보여 주고, 남이 낳은 아기를 자기 품에 받아 양육자가 되는 한 어머니를 보여 준다. 셈이 맞지 않아 물러난 자의 이름은 지워지고, 셈을 넘어선 자의 이름은 다윗의 계보에 남는다 — 그 대비 자체가 독자가 들어설 문이 된다. 자기 셈을 넘어 한 사람의 끊긴 이름을 잇는 일, 비었다고 여긴 품을 닫지 않고 열어 두는 일, 그리고 그 작은 친절 뒤에서 숨어 일하시는 손길이 홍년의 빈손을 다윗의 계보로까지 거두신다는 것을 들고 머무는 일. 한

가정의 헤세드가 왕의 계보로 거두어지는 이 권이 이제 닫히고, 그 마지막 단어 '다윗'이 다음 책의 문을 연다 — 그 계보에 자기 작은 친절을 보태어 보는 것, 그 간격이 독자를 부르는 불씨다.

다음 권으로 미는 운동 한 줄: 룯기가 닫히는 마지막 단어는 다윗이다 — 그 이름이 다음 책의 문을 가리키며, 사무엘상이 한 아이를 구하는 하나의 기도(삼상 1장)와 함께 왕정의 서막으로 열린다.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meshiv nefesh* — 생명의 회복자.

미해결 질문

룯기 4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김 단계로 이월.

Q1. 4:13 —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시므로"는 왜 권의 거의 끝, 출생의 순간에 한 번만 나오는가?

- 1~3장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헤세드 뒤에서 거의 무대 밖에 계셨다. 룯은 첫 남편과 십 년을 함께했으나 자식이 없었고(1:4-5), 여기서는 곧 아이가 온다. 본문은 그 차이를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시므로"라는 한 마디로만 표시하고 설명하지 않는다. 숨어 일하심과 한 번의 또렷한 등장 사이를 어느 쪽으로도 닫지 않고 보존.

Q2. 더 가까운 고엘(4:6) — 율법적 하자가 없는데 본문은 왜 그의 이름을 끝내 적지 않는가?

- 그는 무를 권리를 다음 사람에게 정당하게 넘겼고, 정죄받을 행위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름 가득한 권에서 그만 '아무개(peloni almoni)'로 남는다. 자기 기업을 지키려다 이름을 잃은 자와 손해를 떠안아 계보에 든 자의 대비를, 본문은 평가의 말 없이 이름의 있고 없음으로만 둔다. 그 침묵을 침묵대로 보존.

Q3. 신 벗어 건넌(4:7-8)과 신 벗김(신 25:9) — 같은 신발이 왜 두 본문에서 정반대 결로 쓰이는가?

- 신 25:9에서 신 벗김은 계대의 책임을 거부한 자에게서 신을 '벗기는' 수치의 표였고, 룯 4:7에서 신 벗음은 거래를 확정하려고 스스로 신을 '벗어 건넌' 증서의 표다. 같은 소품이 수치와 공증으로 갈린다. 본문은 4:7을 관습 각주로만 설명하고 두 본문의 관계를 닫지 않는다. 보존.

Q4. "죽은 자의 이름으로 기업을 잇게"(4:5·10)와 빛난 이름의 어긋남 — 누구의 이름이 남았는가?

- 이 일은 죽은 자(말론)의 이름을 끊기지 않게 하려고 시작됐는데, 태어난 아이의 이름은 오벳이고 본문이 기리는 계보는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21절)다. 끊기지 않게 하려던 이름과 실제로 빛난 이름이 겹치고 어긋난다. 본문은 그 어긋남을 설명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 보존.

Q5. 며느리의 아들이 시어머니의 아들로(4:16-17) — 누가 누구의 아들인가?

- 아이를 낳은 사람은 룯인데(13절) 여인들은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17절) 선언하고, 나오미가 아기를 품어 양육자가 된다(16절). 룯의 결단(1:16-17)이 그 며느리가 낳은 아이로 시어머니의 빈 품을 채우는 것으로 돌아온다. 누가 누구의 아들인지의 경계가 사랑 안에서 흐려지는 지점 — 그 끝을 단정하지 않고 보존.

Q6. 4:22의 다윗과 1:1의 흥년 —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의 어둠과 권의 빛 사이에 무엇이 있었는가?

- 권의 첫 절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흥년이 드니라"(1:1)이고, 마지막 단어는 "다윗"(4:22)이다. 사사기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삿 21:25) 한가운데에서, 한 가정의 헤세드가 왕의 계

보를 낳는다. 그 사이를 채운 것이 사람들의 작은 친절인지 숨은 손길인지 — 본문은 돌을 겹쳐 두고 권을
닫는다. 사무엘상으로 이월.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